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01]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작자 미상): 2P
- [02] 채생기우 (이현기): 6P
- [03] 김진옥전 (작자 미상): 8P
- [04] 숙향전 (작자 미상): 12P
- [05] 정진사전 (작자 미상): 16P
- [06] 강도몽유록 (작자 미상): 20P
- [07] 옥소전 (작자 미상): 22P
- [08] 천수석 (작자 미상): 24P
- [09] 수궁가 (작자 미상): 28P
- [10] 심청전 (작자 미상): 32P
- [11] 지봉전 (작자 미상): 36P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09p / 해설 39p]

이 산의 동남쪽 3,000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이 있는데,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노힐부득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월장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미승이었다. 또 한 사람은 달달박박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수범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범마였다. 이들은 풍채와 골격이 평범하지 않고 속세를 벗어난 높은 사상이 있어서 **서로 벗이 되어 사이 좋게 지냈다.**

스무 살이 되자 마을 동북쪽 고개 밖의 법적방으로 가 의지하여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에 서남쪽 치산촌 범종곡의 승도촌에 있는 오래된 절이 머물며 수양할 만하다는 말을 듣고는 함께 가서 대불전, 소불전이라는 두 마을에 각각 살았다. 노힐부득은 회진암 또는 양사에 머물렀고, 달달박박은 유리광사에 머물렀는데, 그들 모두 처자를 데리고 가 살면서 생계를 꾸리는 일을 하며 **서로 오갔다.** 그러면서도 **정신을 수양**하며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몸과 세상살이의 무상함을 보고는 서로 말하였다.

“기름진 땅과 풍년 든 해가 참으로 좋기는 하지만 옷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기고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며, 부녀와 집이 좋기는 하지만 연지화장에서 여러 부처와 앵무새, 공작과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하다. 더구나 불교를 배우면 부처가 되어야 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미 머리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 속세에 얽매인 것을 벗어 버리고 무상(無上)의 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노릇 이거늘, 어찌 계속 티끌 같은 세상에 파묻혀 세속의 무리들과 함께 지내려 하는가?”

이들은 드디어 인간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골로 숨으려 하였다.

어느 날 밤 꿈에 백호광이 서쪽으로부터 오더니 그 빛 속에서 금색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깨어나 꿈 이야기를 하니, 두 사람의 꿈이 똑같아 함께 오랫동안 감탄하였다. 마침내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갔는데, 박박사는 **북쪽 고개 사자암**에 터를 잡아 여덟 자의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판방이라 하였고, 부득사는 **동쪽 고개 돌무더기 아래의 물이 있는 곳에** 방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뇌방**이라 하였다. 각기 암자에 살면서 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불을 구**하고, 박박은 **미타불을 염불**하였다. 3년이 못 되어 경릉 3년 기유년 4월 8일 성덕왕이 즉위한 지 8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스무 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남자가 갑자기 난초와 사향 냄새를 풍기며 북쪽 암자에 당도하여 자고 가기를 간청하면서 시를 지어 바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나그네 걸음 늦어 해가 지니 온 산은 저물고,
길 막히고 성(城)은 먼데 사방이 고요하네.
오늘 밤은 이 암자에서 머물고자 하니,
자비로운 스님께서는 화내지 마십시오.

박박이 말하였다.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하므로 그대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이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시오.”

박박은 문을 닫고 들어갔다.

남자가 남암으로 가 또 이전과 같이 간청하니, 부득이 말하였다. “그대는 이 밤중에 어디에서 왔소?”

남자가 대답하였다.

“저의 고요하고 맑은 모습이 태허(太虛)*와 같은 몸인데, 어디를 오고 가겠습니까? 다만 어진 선비의 뜻과 소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보리(菩提)*를 이루도록 도와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시를 하나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해 저문 깊은 산길에
가도 가도 인가가 보이지 않네.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늘은 더욱 깊건만,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가 오히려 새롭네.
[B] 자고 가기 애원함은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함이네.
바라건대 내 청만 들어주고,
또 누구냐고 묻지 마시오.

부득사가 듣고 놀라면서 말하였다.

“이곳은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이 아니지만,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 또한 보살행(菩薩行)의 하나지요. 더구나 깊은 골짜기에 밤이 어두웠으니, 어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소.”

그러고는 그녀를 맞이하여 절하고 암자에 머물게 하였다. 밤이 되자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몸가짐을 가다듬고 반벽(半壁)에 희미한 등불을 켜고 고요히 염불을 하였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에 남자가 불러 말하였다.

“내가 산기(産氣)가 있으니, 스님께서는 쉼자리를 깔아 주십시오.”

부득은 그 모습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은은하게 밝혔다. 남자는 해산을 마치자 또 목욕시켜 주기를 간청하였다. 노힐부득은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움이 엇갈렸으나, 애처로운 마음이 더해져 거절하지 못하고 목욕통을 준비하여 남자를 통 속에 앉히고 더운물로 목욕을 시켰다. 그러자 얼마 후 통속의 물에서 향기가 풍기며 물이 금색으로 변하였다. 부득이 몹시 놀라니, 남자가 말하였다.

“우리 스님께서도 물에 목욕을 하십시오.”

노힐부득이 마지못해 그의 말에 따르자 문득 정신이 맑아지더니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고 갑자기 옆에 하나의 연화대(蓮花臺)가 생겼다. 남자가 거기에 앉기를 권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관음보살인데 이곳에 와서 대사를 도와 대보리(大菩提)를 이루도록 한 것이오.”

말을 마치고 남자는 사라졌다.

한편 박박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늘 밤 노힐이 반드시 계율을 더럽혔을 것이니 가서 실컷 비웃어 주리라.”

박박이 가서 보았더니 노힐은 연화대에 앉아서 미륵존상이 되어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갖추어 말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 연유를 모두 자세하게 말하니, 박박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마음이 막혀서 요행히 부처님을 만났는데도 도리어

예우하지 못하였습니다. 큰 덕이 있고 지극히 어진 스님께서 나보다 먼저 성불하였으니, 옛날의 교분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도와주십시오.”

노힐이 말하였다.

“통 안에 아직도 남은 물이 있으니 목욕을 할 수 있을 것이오.”

박박도 몸을 씻자 부득처럼 무량수 부처가 되어, 두 부처가 엄연히 마주 대하게 되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는 다투어 와서 우러러보고 감탄하면서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두 부처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나서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천보 14년 을미년(755)에 신라 경덕왕이 이 사실을 듣고는 정유년(757)에 사신을 보내 큰 절을 짓도록 하고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라고 편액하였다.

- 작자 미상,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

* 태허: 음양을 낳는 기(氣)의 본체.

* 보리: 불교 최고의 이상인 부처의 깨달음.

[25001-0101]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달달박박은 승려이면서도 노힐부득과 달리,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잇기 위해 일을 하며 살았다.
- ② 노힐부득은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을 계기로 하여 달달박박을 설득해서 산골로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다.
- ③ 속세를 떠나려고 하면서 달달박박은 속세에 대해 미련을 두었지만, 노힐부득은 속세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았다.
- ④ 달달박박은 남자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지만, 노힐부득은 주저할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않고 남자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 ⑤ 수행 과정에서 받은 세속적 유혹을 물리쳤다고 생각한 달달박박은 자신과 달리 노힐부득은 비슷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5001-0102]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설은 전승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이야기의 한 갈래이다. 전설은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나 인간이 이루고 살아온 문화나 인공물, 혹은 인물의 유래나 이력을 제재로 삼는다. 전설은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상의 제시, 대상의 연유, 증거물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진다. 특정한 시·공간과 증거물을 통해 사실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과도 유사하나, 전설은 서사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사실과 비현실적인 상상을 넘나드는 경우가 더 많다.

- ① 선천촌, 백월산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지명을 명시한 제한된 공간을 서사의 배경으로 설정한 것에서 전설의 갈래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② 부모의 이름까지 밝힌 구체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제시하여 그 삶의 이력을 드러내고, 인물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절을 세운 유래를 서술한 것에서 전설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③ 성덕왕 즉위 후 8년, 신라 경덕왕 재위 중 정유년과 같이 인물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특정하여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과도 유사한 전설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④ 현실 속의 인물들이 관음보살을 만나거나 구름을 타고 가 버리는 등과 같이 비현실적인 상상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사실 위주로 기록하는 역사 서술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전승자가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목욕통과 연화대와 같은 특정한 인공물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강조한 이 이야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5001-0103]

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물음의 방식을 통해 남자가 바라는 바를 지적 화자의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다.
- ② [A], [B]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정체를 비유적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다.
- ③ [A]와 달리 [B]에는 사건 발생의 시간적 배경과 관련된 공간적 배경의 특징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남자가 스님의 거처에 머무르려고 하는 궁극적 목적이 화자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 ⑤ [B]와 달리 [A]에서는 스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다가 가려고 하는 남자의 모습이 화자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25001-0104]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 우정을 나누며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도반(道伴) 서사는 대개 ‘절친한 벗의 등장-동반 수행-입적’의 구조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두 인물 사이의 물리적 혹은 정신적 차이나 거리가 좁혀지는 양상은 작품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 「남백월 이성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경우 친구의 도움으로 물리적, 정신적 차이나 거리를 화합으로 극복하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이는 초월적 존재의 개입 속에서 득도의 현실성을 더해 주는 가운데 진정한 구도의 정신은 계율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자비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서로 벗이 되어 사이 좋게 지냈’고 ‘서로 오’가면서 ‘정신을 수양’했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도반 서사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달달박박은 ‘북쪽 고개 사자암’의 ‘판잣집’에서, 노힐부득은 ‘동쪽 고개 돌무더기 아래의 물이 있는 곳’의 ‘뇌방’에서 각기 살았으므로 두 인물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노힐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불을 구’한 것에 반하여 달달박박은 ‘미타불을 염불’하는 것에서 수행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인물 사이의 정신적 거리로 인한 갈등과 반목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달달박박은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계율에 집착하여 성불하지 못했지만, 노힐부득은 타인을 ‘측은한 생각’으로 돕는 것을 계율보다 우선시하여 성불함으로써 참된 자비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 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달달박박이 노힐부득에게 ‘옛날의 교분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도와’ 달라고 요청하자 노힐부득이 거절하지 않고 그 부탁을 들어주어 함께 부처가 되어 입적한 결말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두 사람의 물리적, 정신적 거리가 화합으로 극복됨을 확인할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13p / 해설 41p]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는 산소가 어떻더냐 급히 묻고, 또 정성스레 재계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물었다. 채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공부를 하라고 분부했다. ㉠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 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 노인의 집에 가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니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고, 부들자리와 삼베 이불에는 벼룩이 들끓었다. 아내는 나무 비녀에 땀방울을 입고 때 낀 얼굴이 비쩍 말라 뼈죽해졌다.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채생의 생각은 오직 김 노인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에 있을 뿐이었는데,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채생은 원진의 시 한 구절*을 속으로 읊조렸다.

[A] 넓은 바다 건너 보니 강물이 하얗아 뵈고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네.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 탄식 속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했다.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서 늘 다정하게 대해 주었는데, 성묘 다녀온 뒤로 문득 냉담하게 대하는구나.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아내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낚시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채생이 차고 있는, 베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다.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 보기로 했다.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 보니 과연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들었고, 그 속에는 부시와 부싯돌이며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주머니 안에 든 물건들을 자리 위에 벌여 놓고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렸다.

얼마 뒤 ㉣ 채생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며 들어와 말했다. “이 녀석, 아직까지 잠을 자면 어느 겨를에 글 한 자를 읽겠느냐!”

문을 열고 질책하자 채생은 놀라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가 문득 자리 위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다. 해괴한 일이다 싶어서 채생을 그물 안에 넣어 대들보에 매달고 힘을 다해 매질했다. 채생은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일일이 실토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한층 더 격노하여 길길이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 하나를 시켜 김령을 불러오게 했다.

김령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재상이나 학사라 할지라도 앉아서 불러 볼 수 없는 인물이거늘, 하물며 일개 학구*가 심부름꾼을

보내 멋대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다만 과부가 된 딸을 시집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말을 달려 채생의 집으로 갔다. 채생의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했다.

“그대는 예를 무너뜨리고 딸의 음분(淫奔)*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 대체 왜 그런 거요?” 김령이 말했다.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맥의 아드님을 만났으니, 피차간의 불행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소이다. 하지만 ㉤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두 집안이 평안하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낼 것까지야 없지 않겠소이까?”

채생의 아버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김령은 즉시 떠나며 말했다.

“앞으로는 아무 상관없이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사십시다.”

[중략 부분 줄거리] 김령은 채생 집안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 채생 아버지의 환심을 얻음으로써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한다. 이후 커다란 새집을 지어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 오게 하자, 채생의 어머니는 새집에서 지내고자 하나 아버지는 새집에서 살기를 거부한다.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그러자 어머니는 좋은 날을 택해 이사했다.

아버지가 때때로 가 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앞에 나와 맞이하며 절하고 좌우에서 에워싸고 곧장 별당으로 모셔 들어갔다.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와서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곳이었다. 별당에 들어가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 섬돌에는 화초가 우거졌으며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앞에 그득해서 물 흐르듯 분부에 응했다. 들어가 아내를 만나니 아내의 처소도 별당과 마찬가지로였다.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노라니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 결국 억지로 집에 돌아오면 무너져 가는 두어 칸 초라한 집이 언제나 그렇듯 쓸쓸하기만 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B]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 한 번 튕길 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하거늘, 내가 이리 고생을 자처하며 살아 무엇 할꼬?’

급히 채생을 불러 말했다.

“나 홀로 빈집에 살며 네게 아침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는 게 도리어 폐가 되는구나. 또 가족이 따로 사는 것도 늘그막에 어려운 노릇이다. 나도 새집에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채생이 매우 기뻐하며 좋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날로 옮겨 가니 모친도 다른 말이 없어 기쁨이 백배나 컸다.

김령은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 일천 묘(畝)를 채생에게 주었다. 채생은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힘썼다. 얼마 뒤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에 공명을 떨치고

출수형

마침내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으며, 금상 즉위 초에 기사의 신하로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 이현기, 「채생기우」 -

- * 원진의 시 한 구절: 원진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 채생이 읊조린 시는 원진이 쓴 「이사(離思)」로,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임.
- * 학구: 학문에만 열중하여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 * 음분: 남녀가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함. 또는 그런 행동.
- * 사위를 고르는 수레: 김령은 과부가 된 딸을 애처로이 여겨, 새벽에 서울 큰 거리로 하인들을 내보내 처음 만나는 젊은이를 수레에 태워 오게 해 딸의 배필을 삼으려 했는데 그때 그 하인들에게 붙들려 온 사람이 바로 채생임.

[25001-0105]

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를 통해 채생은 자신이 자연에서 경험한 일과 그에 말미암은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를 통해 채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태도를 나타내며 부정적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③ [A]를 통해 채생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며 자신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 ④ [A]를 통해 채생은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를 통해 채생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비유적으로 언급하며 그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부각하고 있다.

[25001-0106]

2.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은 집’과 ‘새집’에 대한 채생의 아버지의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였다.
- ② 채생 집안사람들의 거주 공간이 ‘작은 집’과 ‘새집’으로 나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 ③ 채생의 아버지는 ‘작은 집’이 편했지만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새집’으로 거주 공간을 옮겼다.
- ④ 채생의 아버지가 ‘작은 집’에 머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새집’에는 채생의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 없었다.
- ⑤ 채생의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남편이 염려되어 ‘새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남편을 설득했다.

[25001-0107]

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김령의 집에서 누렸던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 ② ㉡: 성묘를 다녀오기 이전에 자신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서 비롯된 반응이다.
- ③ ㉢: 자신의 짐작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반응이다.
- ④ ㉣: 아들이 김령의 집에서 겪었던 일을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보인 행동이다.
- ⑤ ㉤: 두 집안이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밝히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 발언이다.

[25001-0108]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채생기우」는 조선 후기 야담으로 몰락 양반인 채생과 그의 아버지, 성공한 중인인 김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들 사이의 대조적인 생활 정경,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를 통해 채생의 아버지가 드러내는 양반층의 허위의식이 김령과 같은 중인 계층의 물질적 능력이나 합리적 사고와 부딪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서민층이 바라는 물질적 가치가 양반층이 강조하는 윤리적 가치보다 중시되던 당대의 세태를 흥미롭게 그려 낸다.

- ① 채생이 ‘김 노인 집의 향기로운 규방’과 대비되는 ‘아내의 방’에서 탄식을 하는 것에서, 몰락양반과 성공한 중인의 대조적 생활 정경과 그에서 비롯한 채생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김령이 모욕을 당해도 ‘과부가 된 딸’을 생각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채생 집안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로 단란하게 살게 하는 데에서, 김령이 실질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채생의 아버지가 ‘그대는 예를 무너뜨리’어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라고 꾸짖자 김령이 ‘피차간의 불행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소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양반층이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를 수용하여 자신의 딸이 행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김령의 합리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채생의 아버지가 ‘별당’의 안락함을 경험하면서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억지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쓸쓸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윤리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는 몰락 양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채생이 ‘비옥한 땅 일천 묘를’ 얻어 ‘집안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과거 공부에만 힘’쓸 수 있게 되어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에 공명을 떨치’게 된 것에서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 물질적 능력이 중시되던 조선 후기의 세태가 작품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17p / 해설 43p]

[앞부분 줄거리] 천상에서 지은 죄로 지상으로 내려온 진옥은 남 선우의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화산 도사의 가르침을 받은 뒤 장원 급제한다. 이후 진옥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며 천정 배필인 유 소저와 혼인하고, 남 선우가 재침입하자 출전하여 대승을 거둔다. 귀국하던 진옥은 홀로 배를 타라는 화산 도사의 명을 받고, 우연히 한 섬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던 길에 진옥은 용왕이 보낸 동자를 만난다.

원수가 부친을 모시고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천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하니 또한 별건곤이러라. 궁궐이 장려하고 황금 대자로 썼으며, '수정궁'이라 하였더라.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백 옥상에 좌정한 후 가로되,

“과인이 일찍 대원수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래이되, 유현(幽顯)이 노수(路殊)*한 고로 봉영치 못하고 앉아 맞으니, 심히 불안토소이다.”

원수가 왈,

“나는 인간 미천한 사람이라. 대왕이 이렇듯 관대하시니 불승승황하여이다.”

왕이 불감함을 칭사하고 주과를 내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주를 옥배에 가득 부어 권하니, 원수가 사양치 아니코 취토록 먹은 후 서로 담화하더니, 한 신하가 나아와 주 왈,

“동국 대병이 벌써 지경을 범하였사오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하거늘, 용왕이 원수더러 왈,

“과인이 원수께 청할 말씀이 있사오니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말으소서.”

원수가 왈,

“무슨 말씀인지 알고자 하나이다.”

왕 왈,

“동국 왕이 강포를 믿고 대군을 몰아 과인을 치되, 과인이 그 강악을 당하지 못하매 장차 위태하기로 당돌히 원수를 청하였사오니, 그 강병을 막아 주시면 은혜난망일까 하나이다.”

원수 왈,

“복*은 진세(塵世) 한사(寒士)라. 비록 조그만 재용이 있으나 수부 조화무궁한 용왕을 어찌 당하리오.”

용왕 왈,

“원컨대 원수는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말으소서.”

원수 왈,

“사세 여차하니 어찌 사양하리잇고? 대왕은 물우(勿憂)하소서.”

왕이 대희하여 정병 팔십만을 조발하여 주고 천리비룡마와 백리희소검을 주며 수부 대도독을 하이니, 원수가 부친과 용왕께 하직하고 나오니, 기치창검과 군사의 정숙함이 인간과 다름이 없더라.

각설. 원수가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던 장졸이, 일야 대풍에 원수의 탄 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군중이 황황하여 제장 군졸이 두루 찾으되 종적을 모르는지라. 하릴없어 장졸 등이 주야배도하여 황성에 득달하여 천자에게 이 사연을 주달

하오니, 상이 들으시고 대경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하시나 원수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괴히 여기시더라.

차시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며 천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축수하더라.

선시에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의 부마 됄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의 표풍하여 사생을 모름을 듣고 대희하여, 이에 전 승상과 부마 전여선과 좌승상 이선영과 병부 상서 정동한 등으로 더불어 밀밀히 계교를 베풀어 천자에게 주하되,

[A] “갑자년 난중에 김시광이 남 선우로 더불어 내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도망하여 월국에 들어가 대국을 도모코자 하오니 이는 반역지신이요, 또 김진옥이 월국을 항복받고 돌아오는 체하다가 이제 도망하였사오니, 그 뜻을 불가측이니 이는 역신이라. 그 처자를 어찌 그저 두리잇가? 복원 성상은 숙찰지(熟察之)하소서.”

상이 들으시고 그렇기 여기서 유 승상을 삭탈관작하시고 진옥의 처 유 소저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중략)

유 씨 하릴없이 옥중에 있어 주야로 한림의 돌아옴을 기다리나, 오지는 아니하고, 옥빈홍안에 눈물이 견힐 날이 없더라.

일일은 몸이 곤비하여 누웠더니, 사몽비몽간에 한 선녀가 구름 속에서 내려와, 유 씨 곁에 앉으며 왈,

[B] “낭자야, 인간 고행이 어떠하니잇고? 낭자가 설움 끝에 영화가 돌아오리니, 옥보방신을 보호하여 지레 손상치 말으소서.”

하고 간테없거늘, 놀라 깨니 한 꿈이라. 낭자가 슬픈 중이나 생각하되,

“나 같은 박명한 몸을 귀신이 와 명백히 가르치니, 하늘이 이런 인생을 살피심이 있도다! 행여 살아 있다가 혹자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마음을 천만 강잉*하여 지내더라.

각설. 차시 김 원수가 수부의 대장이 되어 수족 신병을 거느리고 동해를 향하여 나아가더니, 동국 용왕이 천병만마를 거느리고 지경을 범하거늘, 원수가 살펴보니, 유수진을 치고 기세 엄속하거늘, 제장을 불러 분부 왈,

“나는 일자 장사진을 칠 것이니, 여등은 나의 명을 어기지 말라.”

선봉장 신감이 보하되,

“적장이 와 싸움을 돈우나이다.”

하거늘, 원수가 군을 거느려 서로 접전할새, 동국 왕이 대호 왈,

“너는 중국 서질구투*라. 수부 대도독이라 하니, 네 무삼 재주를 가졌관대 감히 나를 대적하려 하나뇨? 죽기를 아끼거든 일찍이 항복하라.”

원수가 대로 왈,

“동국 왕 필부가 어찌 무례하리오. 네 비록 풍운조화를 가졌으나 네 어찌 감히 나를 당하리오. 네 능히 나를 당하면 내 당당히 항복하리라.”

동국 왕이 대로하여 칼을 두르며 내닫거늘, 원수가 맞아 싸워 승부를 다들새, 원수가 칼을 들어 왕의 명문을 지르니, 왕이 몸을 기울여 피하며 서로 싸워 삼십여 합이 되도록 승부가 없더니, 용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말머리를 돌이켜 달아나며 생각하되, ‘내 힘으로는 능히 당치 못하리라.’ 하고 운무를 일으켜 천지 자옥 하니, 원수가 정히 왕을 잡게 되었던니, 문득 천지 아득하고 지척을 분변치 못할지라. 원수가 패하여 **본진**에 돌아와, 제장과 의논할새, “용왕의 조화가 불측하니 마땅히 계교로 잡을 것이라. 이제 용왕이 우리 패함을 업신여겨 태만하리니, 이때를 당하여 겁척하면 승전하리라.”

하고 제장을 각각 계교를 가르치고 삼경에 밥 먹고 사경에 행군하여 치기를 준비하라 하니, 제장이 청령하고 물러가더라.

때 정히 사경이 되매 원수가 군사를 휘동하여 적진에 돌입하니, 적진 장졸이 불의지변을 당하여 죽은 자가 부지기수러라. 왕이 정히 칼을 들고나오다가 말이 무릎을 꿇으니 왕이 번신낙마 하는지라. 원수가 마침 이르러 용왕의 낙마함을 보고 달려들어 왕의 꼭뒤*를 잡아 엮지르니, 군사가 달려들어 진진히 결박하여 본진으로 보내고, 쟁 쳐 군을 거두어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와 장대에 높이 앉아 용왕을 장대하에 꿰리고 항복하라 하니, 왕이 양천 탄식기를 마지아니코 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항서를 받아 승전한 사연을 용왕에게 알게 하니, 용왕이 대희하여 원수의 부친을 청하여 사례 왈,

“양계에 인재 많은 줄은 이미 안 지 오래거니와, 영랑 같은 명장을 만나 과인이 저의 은혜를 태산같이 입어 만년유택을 안보케 하시니, 여차 대공을 장차 무엇으로써 갚사오리잇가?” 하며, 사자를 발하여 원수에게 문후하여 맞아 올새, 십 리 외에 나와 친히 영접하여 좌정한 후 만만칭사하고 술을 받들어 올려 권하니, 원수가 순순히 접배하고 왈,

“승전하기는 다 대왕의 홍복이라. 어찌 복의 공이라 하리잇고?” 용왕이 김 승상으로 서해군을 봉하고 원수로 동해군을 봉하고, 대연을 배설하여 각처 용왕을 다 청하고 또 모든 선관 선녀를 청하니, 오래지 않아 용왕과 모든 선관이 이르러 좌를 정하고 팔진미 찬을 올리고 주배를 날려 즐길새, 용왕이 금번 승전한 공을 칭송하니, 모든 용왕이 칭찬함을 마지아니터니, 문무 관원이 보하되,

“일광노, 여동빈, 이태백, 두목지, 소동파, 장건이 오시나이다.” 하거늘, 왕이 궁문 밖에 나와 맞아 입실 좌정하매, 제선이 원수의 손을 잡고 왈,

“우리를 모르나냐?”
원수 대 왈
“자세히 알지 못하나이다.”
한 선관이 이르되,
“나는 일광노요, 저는 여동빈이요, 이는 두목지, 소동파, 이적선 이라. 전일 삼신산* 백운동에서 바둑 두던 친우들을 어찌 모르 나뇨?”

하고 소매 안으로서 대추 같은 실과를 내어 주며 왈,
“그대 이제 이것을 먹으면 전생 일을 날날이 알리라.”
하거늘, 원수가 받아먹으니 과연 전생 일이 안전에 벌였는지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 * 유현이 노수: 용궁과 인간계가 서로 길이 다름을 일컬음.
- * 복: 남자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 천만 강양: 여러 가지로 억지로 참고 견딤.
- * 서질구투: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친다는 뜻으로, 줌도둑을 일컬음.
- * 꼭뒤: 뒤통수의 한가운데.
- * 삼신산: 중국 전설에서 나타나는 가상적인 세 영산.

[25001-0109]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옥은 아버지와 함께 용왕의 환대를 받던 중 동국 왕의 침입에 대해 알게 되었다.
- ② 유 승상은 진옥의 배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진옥이 무사히 돌아 오기를 기원하였다.
- ③ 우양 공주는 진옥에게 적대심을 품고 진옥을 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 ④ 동국 왕은 진옥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과 대적하려고 하는 진옥의 기세에 압도당하였다.
- ⑤ 용왕은 승전 소식을 들은 후 진옥의 부친에게 진옥이 세운 업적에 대해 칭찬하였다.

[25001-0110]

2. 윗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정궁’은 진옥이 황성으로 가는 경유지이자, 용왕이 진옥을 시험하는 공간이다.
- ② ‘황성’은 천자가 진옥의 소식을 듣는 공간이자, 진옥의 안위를 걱정하는 공간이다.
- ③ ‘옥중’은 유 씨가 자신을 향한 위협을 확인하는 공간이자, 남편의 무사함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동해’는 진옥이 천자의 명령에 따라 동국 왕과 대항하는 곳으로, 천자의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 ⑤ ‘본진’은 진옥이 제장의 전갈을 기다리는 곳으로, 제장이 동국 왕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는 공간이다.

[25001-0111]

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들어 이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고, [B]는 상대방의 행적을 들어 이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걱정을 언급하며 이에 공감하고 있고, [B]는 상대방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상대방과 대상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B]는 상대방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 ④ [A]는 대상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B]는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A]는 대상이 겪은 과거의 일을 거짓으로 전달하며 상대방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고, [B]는 상대방이 겪을 미래의 일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당부를 전하고 있다.

[25001-0112]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진옥전」에는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적 세계를 바탕으로 천상계에서 적강한 주인공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담이 드러나 있다. 작품의 서사에서 전쟁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초월적 세계 간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주인공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은 영웅 소설의 일면을 보여 준다. 이처럼 전쟁은 주인공의 영웅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나타나는 한편, 주인공의 결연에 영향을 줌으로써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 ① 용왕이 진옥에게 정병 팔십만을 주고 말과 검을 하사하는 것에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돕기 위해 천상계의 존재가 전쟁에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진옥이 용왕의 요청을 승낙하게 되는 때 천자가 유 소저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에서, 남녀의 결연에 위기가 발생하는 데 전쟁이 관여됨을 알 수 있군.
- ③ 진옥이 제장에게 계교를 가르친 것과 진옥으로 인해 군사들이 동국 왕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된 것에서,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이 전쟁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진옥이 동국 왕에게 항서를 받은 일을 용왕에게 알리고 용왕이 진옥을 동해군으로 봉하는 것에서, 지상계의 주인공이 초월적 세계 간의 갈등을 해결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용왕이 연 잔치에서 진옥이 선관이 준 실과를 먹는 것에서, 주인공이 본래 천상계에 속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21p/해설 44p]

하루는 할미가 크게 슬퍼하여 숙향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나이까?”

할미가 대답하기를,

“나는 본시 천태산 마고선녀로, 월궁항아의 명을 받아 낭자를 구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왔나이다. 예전에 낭자가 요지연에 갔을 때도 내가 파랑새 되어 낭자를 인도했고, 낭군과 혼례를 올릴 때도 삼신산 선관들을 모두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으며, 낙양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파랑새가 되어 낭자의 서찰을 이랑에게 전하는 등 온갖 일을 돌보았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낭자의 고난이 다 끝나 가고, 나 또한 낭자와 함께 살 인연이 다 되었기에 슬퍼하나이다.”

하니 낭자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두 번 절하고 말했다.

“인간 세상의 무지한 눈이 어찌 할머니가 선녀이신 줄을 아오리까? 저는 전생의 죄가 무거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천신만고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저도 할머니가 전생의 부모인가 싶어 오로지 마음속으로 ‘낭군을 만나 좋은 시절을 보게 되거든 할머니의 큰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으리라’ 바랐나이다. 낭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할머니조차 저를 버리고 가려 하시니, 저는 누구에게 의탁하오리까?”

이에 할미가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의 인연이 다한 것은 하늘이 정하신 운명이오니, 너무 한탄하지 마소서. 저도 낭자가 낭군을 모시고 함께 노니는 모습을 보려 했는데, **하늘의 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으리오? 낭군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또 부모를 만날 날도 멀지 않았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소서.”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탓에 부모님의 얼굴과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오니, 부모님을 만난다 한들 어떻게 알아보리이까?”

“예전에 낭자를 죽이려 한 낙양 수령 김전이 낭자의 부친이 로소이다.”

낭자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이까?”

하니 할미가 말했다.

“아직 서로 만나 보실 때가 아닌데, 내가 어찌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부사가 낭자를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도 내가 낭자의 넋을 인도하여 그대 모친의 꿈속에 나타나게 했고, 낭자를 매로 치려 할 때도 사령의 팔에 올라앉아 매질을 못 하게 했나이다.”

“할머니의 은혜는 이승에서는 다 갚지 못할 것이니, 저승에 가서라도 꼭 갚겠나이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마저 가 버리시면 제가 의탁할 곳이 없나이다. 부모님을 찾아가 의탁하고자 하오니, 길이라도 가르쳐 주소서.”

“이제 낭자의 부친은 계양 태수가 되어 갔나이다. 이곳에서 계양까지 삼천오백 리나 되기에 낭자 혼자 가기 어렵고, 낭군을 만나야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나이다. 또 지금 혼자 가시면

낭군과 영영 헤어져 생전에 다시 못 만날 것이옵니다. 낭자의 액운이 다 끝나서 조만간 좋은 시절을 만나 부귀영화도 누리실 것이니,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또한 저 개를 두고 가오니, 나를 본 듯이 여기소서. 저 개가 낭자의 어려운 일을 돌보리이다.”

“할머니가 가시는 곳은 어디며, 여기서 얼마나 멀고, 또 언제 가시려 하나이까?”

“내가 사는 천태산은 이곳에서 오만 팔천 리요, 이제 곧 떠나려 하나이다.”

이에 낭자가 낙담하여 울며 말하기를,

“가시는 곳이 가까우면 따라가고 싶지만 길이 너무 멀어 따라가지도 못하니, 하루만 더 머물러 회포나 풀고 가소서.” 하니 할미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낭자를 데려갈 수 있다면 차마 어찌 버리고 가리오. 내 생각에 낭군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지라. 좀 더 머물러 있다가 낭군을 보고 가고픈 마음이 굴뚝같사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다 되어 급히 가 오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소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여기에 두고 가 오니, 관과 널을 갖추어 옷을 그 안에 넣고, 저 개를 따라가서 개가 발로 땅을 파헤치는 곳에 묻으소서.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 무덤으로 찾아오소서. 내 영혼이라도 낭자를 돌보리이다.”

할미가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 주고 두어 걸음 건더니, 문득 간곳없더라.

(중략)

할미가 떠나간 이후 낭자는 개를 벗 삼아 근근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낭자가 달은 밝은데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으니, 외롭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글로 써서 책상에 올려놓고 잠깐 즐았는데, 깨어나 보니 글도 없고 개도 없었다. 낭자가 더욱 망극하여 울며 말하기를,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사람은커녕 개조차 없으니, 무섭고 쓸쓸한 이 밤을 어떻게 보내리오.”

하며 무수히 통곡하다가 기절하더라.

각설이라. 이때 이생은 태학에 들어온 뒤로 낭자의 소식을 몰라 밤낮으로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낭자의 옥 같은 얼굴이 눈에 선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가 배회 하는데, 멀리서 청 사자처럼 생긴 것이 자기를 향해 울며 달려왔다. 이생이 혼자 생각하기를,

‘이상하도다. 저것은 낭자 집의 청삼사리 같기는 한데, 어떻게 수천 리 밖에서, 그것도 서울의 억만 가구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리오?’

하고 있었더니, 그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 꼬리를 치며 반겨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낭자 집의 개였다. 이생이 너무 반가워 개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너는 짐승이라도 여기까지 와서 나를 보는데, 나는 사람이면서도 낭자에게 가 보지 못하니 내가 너만 못하도다.”

하며 무수히 탄식하고 있는데, 그 개가 입에서 무엇인가를 토해

냈다.
 이생이 놀라 즉시 주워서 보니, 남자의 글씨가 분명했다. 펼쳐서 읽어 보니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다섯 살에 부모를 여의고 십 년이 넘도록 동서를 모르고 구걸하러 다니니, 남이 천하게 여기는도다. 십 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더니, 참소는 무슨 일이고? 악명을 씻지 못해 그토록 고생했는가? 월하의 연분으로 낭군을 만나 백년을 의탁하려 했더니, 원앙금침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이별은 무슨 일이고? 오작교 끊어져 만날 길이 아득하니, 소식조차 누가 전할꼬? 혈혈단신 이내 몸이 할머니께 의지하여 근근이 살아왔는데, 할머니마저 죽었으니 이제 누구에게 의탁할꼬?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천하는 넓고 크다던데, 어찌하여 조그만 이내 몸 의탁할 곳이 없는가? 살아생전에 낭군을 다시 볼 길 없으니, 저승에 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이생이 다 읽은 후 생각하기를,
 ‘남자가 의탁할 곳이 없으니, 이제 죽으려 하는구나.’
 하고 통곡하며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청삼사리에게 자기 밥을 먹인 후, 편지를 써서 목에 걸어 주고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제 할머니마저 죽었으니, 남자가 의탁할 곳이 없는지라. 오로지 네게 의지하여 살고 있으니, 너는 빨리 돌아가 남자를 편안히 모셔라.”
 하니 그 개가 머리털을 흔들며 고개를 조아리고 가더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25001-0113]

1. 윗글의 ‘숙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이 전생에서 지은 죄가 무거워 인간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것임을 알면서도, 앞으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궁급해 한다.
- ② 다섯 살에 부모와 헤어진 후 구걸을 하고 다녔으며, 나이가 든 후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부친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겪었다.
- ③ 십 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며 살다가 억울한 참소를 당했고, 그때 입은 악명으로 인해 자신을 오해한 낭군님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 ④ 자신을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셨던 할머니마저 다른 곳으로 떠나 버리고, 주변에 의탁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게 되었다.
- ⑤ 이생을 낭군으로 만나 연분을 맺고 행복한 삶을 기대했는데, 너무 빨리 헤어진 이후로 만날 길이 없고 소식조차 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5001-0114]

2. ‘파랑새’와 ‘청삼사리’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랑새’는 월궁항아의 명을 받아 남자를 도운 것이고, ‘청삼사리’는 할미의 뜻을 받들어 남자를 돌본 것이다.
- ② ‘파랑새’는 옥중에 있던 남자의 서찰을, ‘청삼사리’는 할미 집에서 남자가 써 둔 글을 각각 이랑에게 전달한다.
- ③ ‘파랑새’는 요지연에 간 남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청삼사리’는 할미가 문힐 자리를 남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남자는 ‘파랑새’의 도움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생은 ‘청삼사리’의 도움으로 대학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는다.
- ⑤ 남자는 할미가 언급할 때까지 ‘파랑새’가 할미가 변신한 존재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생은 ‘청삼사리’가 남자 집의 개임을 금방 알아차린다.

[25001-0115]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숙향전」은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의 교섭에 중점을 둔 작품으로, 숙향이 겪는 사건들은 현실적 성격의 것이면서 동시에 환상적 성격을 지닌다. 숙향이 현실에서 겪는 위기와 고난은 대체로 초월세계 인물의 간섭을 통해 해결되는데, 이는 「숙향전」의 창작 배경과 관련이 있다. 「숙향전」이 창작되던 17세기에는 전란, 기근, 역병, 도적의 출몰 등 생존의 위기와 고난을 겪거나 가족 또는 연인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백성이 많았다. 결국 「숙향전」의 문제 해결 방식은 초월 세계의 신이한 능력을 통해서 현실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숙향이 할미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은 어려서 가족과 헤어진 숙향이 잠시나마 안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월 세계의 인물이 간섭한 결과로 볼 수 있군.
- ② 숙향이 낭군과 혼례를 올릴 때 할미가 삼신산 선관들을 청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치른 것에서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가 교섭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숙향이 물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할미가 숙향의 넋을 인도 하여 숙향 모친의 꿈에 나타나게 한 것은 숙향을 구하기 위해 초월 세계의 인물이 능력을 발휘한 사례로 볼 수 있군.
- ④ 할미가 입고 있던 적삼을 숙향에게 벗어 주고 홀연히 사라져 버린 것은 숙향에게 주어진 난제의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 초월 세계로 돌아가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청삼사리가 서울의 억만 가구 가운데 이생을 바로 찾아내는 것에서, 초월 세계의 인물인 할미가 남기고 간 동물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숙향을 위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25001-0116]

4. 하늘의 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할미가 숙향을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숙향 남자가 할미와 재회하기 위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 ③ 할미가 숙향의 고난을 지켜보기만 하고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이유로 볼 수 있다.
- ④ 숙향 남자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예정된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숙향 남자가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에서 할미가 조언한 대로 행동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25p / 해설 46p]

한편, 이때 일지는 금석을 처치하고 상쾌한 중에, 또 박 씨를 모해하고자 하여 ㉠밤마다 차들과 더불어 의논하더니 차들이 하는 말이,

“내 친구 중에 봉돌이라 하는 놈이 끝난 오입쟁이일 뿐 아니라 국량이 유여하여 오늘 마침해서 박 씨의 말을 듣고 왈 ‘내 상처(喪妻)하여 민망하더니 들으니 박 씨는 자식도 잃어버렸고 이런 때에 호강이나 할까하니 내일 밤에 돌광대를 모아 그 집 문밖에 놀음을 붙이고 어둑해진 후에 엮고 달아나면 일개 아녀자라 꿈쩍 못 하리라’ 하던데 그 말이 어떠한가.”

일지가 손뼉을 치며

“말만 들어도 깨소금 맛이로다. 내 최선을 다해 보리다.”

하고, 만족해하더라.

㉡이날 밤에 박 씨가 ㉢꿈을 꾸니 어떤 한 노인이 사모관대 하고 천연히 들어와 박 씨를 부르며 왈,

“부인은 주무십니까?”

박 씨가 황급하여 대답하기를,

“귀신인가 사람인가.”

노인이 왈,

“부인은 놀라지 마옵소서. 나는 금강산 신령이오니 부인의 재앙을 구하고자 하여 왔나이다.”

박 씨가 일어나 두 번 절하며

“이런 누추한 곳에 신령님이 강림하시니 천만의외이옵니다. 첩의 재화는 어인 말씀이니까?”

“내일 밤에 괴상망측한 욕을 당할 것이니 부디 멀리하소서.”

박 씨가 왈,

“그러면 친절으로 가리까?”

“친정에 가도 그 욕을 면치 못할 것이니 멀리하소서.”

박 씨가 엎드려 통곡하며,

“미거한 인생이 시부모님의 총애하심을 입사와 의연히 부족하고 면면히도 부족하여 걱정을 끼치는 중에 가장은 국가에 헌신하와 만리타국에 가 있고 온통 집안엔 괴상한 재화가 있사와 원통한 사람도 쫓겨 나가고 불쌍한 목숨도 하나 죽었으니 소첩이 만일 일시 재화를 피하여 멀리 가오면 시부모님이 더욱 걱정을 하실 것이요, 또한 여러 횡액이 일어나리니 달리 어디로 가리까. 못내 당한 경황을 면치 못할 테니 차라리 자결하여 죽기만 같지 못할 듯하여이다.”

노인이 왈,

“인명은 재천하리니 임의로 죽지 못하고 씻지 못할 욕만 당하면 그 아니 분하리까. 여자가 비록 힘쓰기 어려우나 내가 인도하여 줄 것이니 걱정 마소서.”

박 씨가 말하기를,

“씻지 못할 인생을 그다지 생각하시니 은혜 하해(河海) 갈사 오나 설령 어디로 간다 하여도 어미 없는 채 순을 버리고 갈 수는 없나이다.”

노인이 왈,

“그건 부인의 요량이니라.”

하고, 홀연 보이지 않았다. 박 씨가 놀라 깨어 몽중에서의 일을 열심히 생각하니 집안에 또 변이 날 징조라. 신령의 말이 그러하니 피하려 하면 필경에 욕을 볼 것이요, 피하려 하여도 거처를 정하지 못할지라. 마음이 심란하여 ‘대부인께 의논하여 보자’ 하고 큰방에 들어가니, 이때 장 씨가 꿈에서 깨어 누웠다가 박 씨를 보고 놀라며 물으니 박 씨가 꿈을 소상히 여쭙었다.

(중략)

이때 진사가 마침 들어오다가 부인의 거동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들어와 물으니 박 씨도 함께 있는지라. 박 씨에게 묻기를, “너는 어찌 여직 자지 아니하고 이 밤에 왔느냐?”

박 씨가 미처 대답지 못하다가 잠시 꿈을 말씀드렸다.

“둘이서 꾸 꿈이 그리도 똑같았으니 집을 어디로 알아보고자 하였나이다.”

진사가 크게 놀라며,

“그런 실없는 말을 어찌하는가. 꿈이란 것이 본디 허상이요, 또한 젊은 여자가 친정도 아니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든 욕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사랑에 나가니 박 씨가 갈 길을 찾아 힘든 차에 진사 말씀에 그렇다고 여겨 다시 잠시 여쭙되,

“아버님 말씀이 지당하오니 설사 무슨 액을 당하여도 집에서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고, 별당에 와 도로 생각하다가 그러그러 날이 새어 종일 염려 무궁하더니, 비자 운선이 고하기를,

“오늘 밤에 우리 집 문밖에 돌광대 논다 하더이다. 애기씨는 구경 아니 하시렵니까?”

박 씨가 그 말을 듣고 자연 심사가 동하여 놀라며 왈,

“이것이 분명 무슨 일 있겠다.”

하고, 염려하였다.

과연 ㉣해가 저물자 대문 밖에 노구 소리가 나며 구경꾼이 모여드는지라. 박 씨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혼자 있기 싫어 대부인께나 가 있을까 하여, 운선을 불러 채순을 업히고 큰방으로 가려는데, 어젯밤에 현몽하던 노인이 홀연 앞서서 큰방으로 인도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거늘, 박 씨가 주저하다가 이미 나섰는지라 운선을 따라 들어가 보니 장 부인이 혼자 앉아 있다가 홀연 일어나 합장 재배하며,

“행차 오실 것을 알았나이다. 먼 길이 편안하셨나йка.”

박 씨가 그 말을 듣고 괴이하게 여겨 다시 보니 장 부인이 아니요 어떠한 여승이 백팔 염주를 목에 걸고 앉았는지라, 더욱 괴이하게 여겨 방 안을 둘러보니 평생 보지 못한 방이요, 옆에 들어오던 노인은 부지거처(不知去處)한지라. 박 씨가 여승더러 묻기를,

“여기가 어딴니까?”

여승이 답하기를,

“금강산 무술암이라 하나이다.”

박 씨가 산신령의 도술인 줄 알고 다시 물어 왈,

“여기서 충청도 괴산이 얼마나 되나이까?”

여승이 왈,

“팔백오십 리라 하더이다.”

박 씨가 왈,

“우리 올 줄 알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승이 왈,

“간밤에 ㉠ 꿈에 산신령님이 현몽하시기를 ‘내일 아무 시에 그럴 만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 것이니 부디 착실히 접대하라’ 하옵기로 이즉 기다렸거니와 어디 계신 행손이 무슨 일로 이런 궁곡(窮谷)에 방문하셨나이까?”

박 씨가 왈,

“얼어먹는 사람이 기약 없이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대사는 죽게 된 인명을 구하소서.”

하고, 머무르니 그 여승은 정수제라 하는 중이더라.

한편, ㉡ 이날 밤에 봉돌이 돌광대로 놀다가 밤이 깊은 후에 박 씨 방에 달려들어 보니 아무도 없는 빈방이라. 박 씨를 찾았더니, 이때 일지가 박 씨 업혀 가는 모양을 보고자 하여 문밖에 섰더니, 봉돌이 박 씨를 찾다가 나오는 길에 일지를 보고 둘러 업고 큰 담을 넘어 달아나니, 일지 업혀 가며 부르짖으며,

“나는 박 씨가 아니니 놓고 가라.”

봉돌이 왈,

“앗따 이년 시끄럽다. 박 씨가 아니면 호박씨는 못 쓰느냐.”

하고, 얼마나 달아났던지 그날 밤에 경기 고양 읍내 사백팔십 리를 들어가니 ㉢ 날이 새더라.

- 작자 미상, 「정진사전」 -

[25001-0118]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일지와 차돌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은 일지와 차돌의 의도대로 그 행위가 실현되는 시간이다.
- ② ㉡은 박 씨가 자신이 머물렀던 곳과 가까워지는, ㉢은 일지가 자신이 머물렀던 집에서 멀어지는 시간이다.
- ③ ㉠은 ㉠에서 야기된 사건이 실행되는, ㉡은 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간이다.
- ④ ㉡은 ㉡에서 발생한 박 씨의 심리적 갈등이 고조되는, ㉢은 이러한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사라진 시간이다.
- ⑤ ㉠과 ㉡은 위기에 대응하며 박 씨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 ㉣은 박 씨로 인해 일지의 성격이 변화하는 시간이다.

[25001-0117]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 씨’는 ‘시부모님’과 ‘채순’을 남기고 갈 수 없다며 멀리 떠나라는 ‘노인’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 ② ‘박 씨’는 돌광대가 올 것이라는 ‘운선’의 말을 듣고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을 염려하였다.
- ③ ‘장 씨’는 ‘박 씨’의 말을 통해 ‘박 씨’가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것을 알게 되었다.
- ④ ‘진사’는 신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박 씨’가 집을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 ⑤ ‘여승’은 ‘박 씨’의 정체와 ‘박 씨’가 찾아온 연유를 미리 알고 ‘박 씨’를 환대하였다.

[25001-0119]

3.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 나타난 존재는 모두 자신과 꿈을 꾸는 주체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 ② ㉠과 ㉡에 나타난 존재는 모두 꿈을 꾸는 주체가 겪게 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다.
- ③ ㉠에 나타난 존재는 꿈을 꾸는 주체를 돕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에 나타난 존재는 꿈을 꾸는 주체가 타인을 도울 것을 안내한다.
- ④ ㉠에 나타난 존재는 꿈을 꾸는 주체를 안심시키기 위해 운명을 안내하고, ㉡에 나타난 존재는 꿈을 꾸는 주체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설명한다.
- ⑤ ㉠에 나타난 존재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꿈을 꾸는 주체의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경고하고, ㉡에 나타난 존재는 자신의 말을 따르면 꿈을 꾸는 주체의 고난이 사라질 것임을 안내한다.

[25001-0120]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진사전」은 악녀(惡女)인 애첩 일지로 인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쟁총형 가정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쟁총형 가정 소설은 ‘선인(善人)을 몰아내기 위한 악녀의 계략’, ‘계략으로 인한 선인과 주변 사람의 시련’, ‘조력자에 의한 선인의 시련 극복’, ‘악녀의 계략 발각과 선인의 대응’, ‘악녀에 대한 징벌’이라는 서사 구조의 전형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악녀의 계략 실행을 돕는 주변 인물이 등장하여 선인이 겪는 시련을 심화하거나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선인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 역시 쟁총형 가정 소설의 전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진사전」에서는 이러한 쟁총형 가정 소설의 전형을 따르면서도, 악녀에 대한 징벌이 선인의 대응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쟁총형 소설과는 차이를 보인다.

- ① ‘일지’가 ‘금석’을 처치했다는 점과 불쌍한 사람이 죽은 재화가 집안에 있었다는 ‘박 씨’의 언급을 통해 악녀의 계략으로 선인의 주변 사람들이 시련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돌광대를 보러 온 구경꾼을 피해 채순을 업고 ‘장 씨’가 있는 큰방으로 피신하려는 ‘박 씨’의 모습에서 악녀의 계략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선인의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박 씨’가 들어간 ‘장 씨’의 방이 순식간에 처음 보는 방으로 변하고, ‘장 씨’ 역시 여승으로 바뀌는 모습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으로 선인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④ 자신의 계략 성공이 궁금하여 ‘박 씨’의 방을 찾았다가 ‘봉돌’에 의해 납치되는 ‘일지’의 모습에서 쟁총형 가정 소설의 전형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악녀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일지’에게 ‘박 씨’를 납치할 계략을 알려 주는 ‘차돌’과, 집을 나온 ‘박 씨’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여승’은 각각 악인의 계략 실행을 돕는 주변 인물과 선인의 시련 극복을 돕는 조력자에 해당하겠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29p / 해설 48p]

청허 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 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날 듯이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의지할 곳이라곤 없었다.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드리며 숙식을 했다.

어느 날 밤 청허 선사는 설핏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서글픈 바람은 불었다 그쳤다 하며, 밤기운이 처량한 게 심상치 않았다. 선사는 석장을 짊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거닐었다.

한밤중이 되자 바람결에 전해 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노랫소리와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였다. 웃고 울고 노래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선사가 몹시 기이하게 여겨 다가가서 엿보니, 줄지어 모여 앉은 이들이 죄다 여자였다.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다.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선후 없이 뒤섞여 앉아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선사가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연약한 머리가 한 길 남짓한 밧줄에 묶이거나 한 자쯤 되는 칼날에 붙어 있는 이도 있고, 으스스한 뼈에서 피가 흐르는 이도 있고, 머리가 모두 부서진 이도 있고,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도 있었다.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고,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A] “나라님이 피란했으니 그 처참함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아, 제가 운명을 달리던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려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었고 체찰사*의 임무를 맡았거늘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 군사 일에 대해 무슨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던만,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아,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연하니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천년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쌓이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한 부인이 몸을 일으키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했다.

“서방님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형만 믿고 군사 일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온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 사직의 존폐가 한 귀퉁이 쇠잔한 성에 달려 있었거늘, 전군이 무너져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행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아, 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을 당한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B] 그러나 이민구*는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무슨 충의를 지녔다고 목숨을 보전하여 천수를 누렸단 말입니까? 도원수 김자점*은 나라 안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나라 안의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 한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그 병사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위 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을 꾀하며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가소로운 심기원*은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 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었거늘, 이런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 군신 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고 제 한 몸만 빼어 환난을 피하고는 스스로 지략이 있다 여기며 거북처럼 목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건만 조정에서는 군법에 회부하지 않고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아아, 내 한 목숨 잃은 건 아까울 게 없지만, 살아 계신 백발의 시아버지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죽은 이든 산 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중략)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의아해하고 있는데, ㉠ 그 여인이 빙그레 웃음 지으며 말했다.

“저는 기녀입니다.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요, 밤마다 운우의 정이 있었으니 향락이 지극하여 즐거웠다 즐거웠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히 여길 것은 절의였으므로 하루아침에 깊은 구방에 들어앉아 비단 장막을 드리우고 한 낭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늘, 뜻밖의 풍파가 일어 청춘의 나이에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의 이 홀륭한 모임은 제 분수 밖의 것인지라 저는 외람되이 곁에서 여러분의 절개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절의와 아름다운 지조는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요, 사람이 반드시 탄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떠한 능욕을 당했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컸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셨으니 무슨 서글픔이 있겠습니까?”

이 말에 좌중의 여인들이 일시에 통곡했다. 그 통곡 소리가

너무도 참담해서 차마 들을 수 없었다.

선사는 혹 들킬까 싶어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몰려 나왔는데, 문득 놀라 깨어 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 작자 미상, 「강도몽유록」 -

- * 버드나무 가지: 관음보살의 33가지 화신 중 하나인 양류관음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버드나무 가지는 중생의 병난을 없애 준다고 함.
- * 남편: 병자호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류를 말함.
- * 체찰사: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관청인 비변사에서 군사 조직의 최고 책임자였던 도체찰사를 말함.
- * 아들: 김류의 아들 김경징을 말함. 강화도가 함락되자 수비에 실패했다는 탄핵을 받아 사형됨.
- * 이민구: 병자호란 때 강화도 방어의 임무를 맡았음. 난이 끝난 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죄로 유배되었음.
- * 김자점: 병자호란 때 도원수의 직위에 있었음.
- * 달무리: 달무리는 바람이 일어날 징조로 여기는데, 여기서는 임금이 전란을 만나 피란 중에 있음을 가리키는 말로 썼음.
- * 심기원: 병자호란 때 유도대장으로서 서울을 방위하는 책임을 맡았음.
- * 청조: 신선 세계에서 소식 전하는 일을 맡은 새.
- * 양대: 중국 사천성 무산현에 있는 양대산을 말함. 남녀가 정을 나누는 공간을 의미함.

[25001-0121]

1. **청허 선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내면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꿈 이야기 안과 밖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인물 간 갈등을 주도하고 있다.
- ③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발화에 드러난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다.
- ④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험에 공감한 후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 ⑤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를 듣지만 개입하지 않는 관찰자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001-0122]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쟁의 상처로 인해 한이 서린 원혼들을 위로한다.
- ②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강조한다.
- ③ 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나라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언급한다.
- ④ 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지난날의 행동을 성찰한다.
- ⑤ 전쟁 상황에서 남성들이 보여 준 모습과 대비되는 부인들의 모습을 칭송한다.

[25001-0123]

3. [A]와 [B]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의 발화자는 모두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있다.
- ② [A]와 [B]의 발화자는 모두 전쟁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수용하며 바람직한 임금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와 [B]의 발화자는 모두 사대부가의 부녀자로서 전쟁 패배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남편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 ④ [A]의 발화자는 [B]와 달리 자신의 가족이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죄가 남았음을 언급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B]의 발화자는 [A]와 달리 실존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조정의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25001-0124]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강도몽유록」은 몽유록의 형식을 통해 병자호란 당시의 참혹한 실상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전쟁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몽유록이란 ‘현실-꿈-현실’의 액자식 구조로, 인물이 꿈속에서 여러 인물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의 모임을 견문하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현실과 꿈은 여러 장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작품은 전란기 조선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하고 비판하면서 조선 사회가 겪은 혼란과 위기의 원인을 무능하고 부패한 개인에게서 찾고 지배층의 지배 담론 안에서 비판의 기준을 마련하며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당대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

- ① 청허 선사가 ‘주인 없는 시신’을 수습해 주려고 강가에 간 것은 ‘잠이 들어’ 원혼들을 만나는 꿈속의 체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청허 선사가 ‘석장을 짚고’ ‘한가로이 거’닌 것은 지배층의 담론 안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나라님이 피란’하고,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는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조선 사회가 겪은 혼란과 위기의 모습이 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부인이 재상이었던 ‘남편’이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들에게 큰 임무를 맡긴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기녀가 부인들을 향해 ‘절개를 우러’른다고 말하며 ‘영예로운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33p / 해설 49p]

이 밤에 대사마가 일계를 생각하고 검술을 행하여 축군 중에 들어가 동정을 살피더니, 검술을 다하여 바로 장군 차에 돌입하니 사방에 철망이요 한 곳도 허술치 아니하매, 사면으로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어 군중을 돌아다니더니 군사들이 외는 말이 대사마를 본 듯이 꾸짖거늘, 놀라서 문득 어천수가 가르치던 말을 생각하고 깨달아 왈,

“내 귀술(鬼術)로 남의 군중을 돌입하였다가 도리어 낭패하도다.” 하고, 도로 본진에 와 울울하여 **옥소**를 내어 일곡을 부니, 요요한 소리 옥을 깨치는 듯, 축진 장졸이 그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이 처량하여 일시에 흩어지니, 승상이 대경 왈,

“이는 장자방(張子房)* 후 일인이라.”

하고, 아무리 군사를 호령하여 진정코자 하나 분분히 달아나니, 대사마가 축진 동정을 보고 날랜 군사를 내어 풍우와 같이 쫓으니, 진·공 두 장수와 장·어 두 장수가 사면에 협공하여 유인하며 일 합씩 싸워 물러가니, 대사마가 분노하여 정신을 모아 한칼로 잡고자 하나 홀연 철망이 공중에 내려져 벗어나는 양을 보고 탄식하여 왈,

“저 진중에 필연 천신이 있도다.”

하고, 칼을 거두고 본진으로 돌아오니, 대저 승상이 경문을 외우면 철문이 공중에 내려지는 도술일러라.

어천수와 장수백이 장대에 들어와 고 왈,

“송진 대사마는 다른 이 아니라 소장이 금일 자세히 보오니 소장의 수양아들이요, 어천수의 사위로소이다. 제 근본을 자세히 아뢰리다.”

하고, 자초지종을 세세히 고하니, 승상이 다시 헤아리니 분명한 자기 아들이요, 옥소 곡조도 또한 자기의 강릉추월이라. 일희 일비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어린 듯이 앓아 다시 말을 못하다가 축왕께 이 사연을 고하니, 왕이 또한 놀라 왈,

“여차하면 승상의 자제를 불러 **부자가 상봉하게** 하면 **천하 도모**하기는 손바닥 뒤집기 같을까 하노라.”

승상 왈,

“비록 부가지정이 중하나 군신지례 **갱가일층(更加一層)***이라. 원컨대 대왕은 신의 말씀을 들으소서. 신이 지난밤에 천문을 보오니, 송 천자의 자미원이 다시 맑은 중 상서 기운을 띠었사오니, 이는 평정할 징조 분명하고, 대왕의 주성을 보오니 십분 희미하오나 또 좋은 기운이 있사오니, 천명을 순하여 귀순하오면 장안에 왕이 되실 징조라. 순하시면 복이 올 것이요, 역하면 화 있으리이다. 대왕은 어찌 처치하리이까.”

축왕이 깊이 생각한 후 얼마 있다가 왈,

“당초부터 **승상의 지휘**라. 지금 어찌 좃지 아니리오.”

승상이 못내 하례하고 원문에 나아와 바로 단기로 장수백과 어천수를 데리고 진전에 나가 먼저 어천수로 송진 대사마에게 글을 보내니, 이때 대사마가 울울하던 차 적장이 글월을 가져왔거늘 떼어 보니,

“축나라 승상 이춘백은 글월을 송나라 대사마 대장군 이운학에게 부치나니, 슬프다. 복중 유아를 **만리 전장에 원수로**

만나니, 도시 나의 죄가 큼이라. 내 황해 감사로 **운남도의 적변을 당하여 만사여생(萬死餘生)***이 자개산 백영 도사의 제자 되었다가 축왕의 지우지은(知遇之恩)*으로 장안을 얻었더니, 이제 부자 상전은 천리에 죄역이라. 내 단기로 진전에 나왔으니, 빨리 함거를 가져오면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자에게 받으리니, 이 장수는 어천수라 너의 장인이니 의심이 없을지라. 자세한 말은 이 장수에게 듣고, 옥소 또한 강릉추월이면 나의 평생 사랑하던 바라. 가서 이 신기한 옥소를 보게 하라.”

하였거늘, 대사마가 보기를 다하며 일신이 떨리고 손발이 황란하여 원문에 나아와 어 장군을 보니 의심 없는 어천수라. 대사마가 읊하여 왈,

“진을 임하여 의심이 없지 아니하니 자세히 말을 듣고자 하노라.”

어 장군이 자초지종을 말하니, 대사마가 옥소를 가져다주어 왈, “이 옥소는 천만 사람이 붙어도 소리가 아니 나니 빨리 가져다 드리라.”

어천수 연망히 받아 가지고 본진에 돌아가 승상께 드리니, 승상이 보니 분명한 강릉추월이라.

일곡을 부니 대사마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필마로 축진 중에 뛰어들어 통곡재배하니, 승상이 통곡을 그치고 얼굴을 들어 자세히 보니 자기 모양과 차등이 없거늘, 손을 잡고 말을 이루지 못하니 대사마가 자주 느껴 정신을 잃거늘, 승상이 애련하여 위로하고 붙들고 장중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대사마가 고하여 왈,

“불초자가 지금 죽사오나 한이 없도소이다.”

올 때 조부모 기력이 강건하시고, 모부인이 외가 찾으란 말씀을 날날이 고하니, 승상이 설월루 같은 말씀을 또한 이르시고 부자가 즉시 축왕께 뵈오니, 대사마 축왕을 보고 읊하여 왈,

“왕은 어찌 처하라 하시나이까.”

왕이 대사마의 손을 잡고 치하하여 왈,

“말아들을 전장에 찾았으니 천고에 희한한 경사라. 어찌 치하하지 아니리오. 과인이 외람히 뜻을 두고 마침 부공을 만나 천하를 도모할까 하였더니, 금일 이러한 경사를 당하매 내 홀로 귀순치 아니하리오. 과인도 함께 천자에게 가 뵈옵고 죄를 청코져 하노라.”

대사마가 대회하여 표*를 천자에게 올리고 전후 사연을 갖추어 아뢰니라.

천자가 첩서* 보기 전 대사마의 승전한 소식을 들으시고 평정하기를 날로 기다리시던 차 표를 보시고 대회하사 사관을 보내사 축왕과 승상은 좌우 승상으로 삼고 예관을 또 보내시니, 대사마 천은을 못내 사례하고 환군하여 여러 날 만에 여남을 지날 새, 승상 부자 다시 조 상서 댁을 찾아 들어가 상서를 보고 지난날 떠나던 말씀이며, 또 장인과 사위의 예를 보이고 운학도 월패를 내어 모친 서찰과 같이 드리니, 상서 부부 급히 맞으며 왈,

“꿈이나 생시냐. 풍파에 죽었는가 하였더니 귀한 사위와 귀한 외손을 보게 되니, 고금 왕래에 이러한 경사 또 어디 있으리오. 그러나 **조정의 높은 벼슬을** 맡은 사람들이니 승상 영접지례와 대사마 영접지례를 감히 소홀히 하지 못

하리라.”

- 작자 미상, 「옥소전」 -

- * 장자방: 중국 한나라의 전국 공신 장양을 말함. 옥통소를 붙여 초나라 병사들을 흠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함.
- * 갱가일층: 한 단계 더함.
- * 만사여생: 꼭 죽을 고비를 면하여 살게 된 목숨.
- * 지우지은: 자기의 인격이나 학식을 잘 대우하여 준 은혜.
- * 표: 마음속의 생각을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글.
- * 첩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는 글.

[25001-0125]

1. 윗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현실적인 공간의 경관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 ③ 천상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교차함으로써 서사 진행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들 간 갈등 상황에서 초현실적인 존재가 개입하여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 ⑤ 인물의 대화에서 변화하는 자연 현상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25001-0126]

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학의 공격으로 열세에 몰리게 된 축진은 춘백의 도술에 힘입어 위기에서 벗어난다.
- ② 장수백은 운학의 양아버지로서, 사돈 관계를 맺은 어천수와 함께 참전하여 운학과 싸운다.
- ③ 축왕은 춘백과 힘을 합쳐 송과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계획을 단념하고 천자를 만나려 한다.
- ④ 천자는 축왕이 보내온 항복 문서를 본 후, 승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축왕에게 벼슬을 내린다.
- ⑤ 춘백의 장인과 장모인 조 상서 부부는 사망했다고 믿었던 춘백을 만나자 놀라워하며 기뻐한다.

[25001-0127]

3. **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운학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 ② 이춘백이 허무감을 몸소 느끼게 되는 장치로 사용된다.
- ③ 이운학이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매개물로 활용된다.
- ④ 어천수가 이춘백의 자격과 능력을 의심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이춘백과 이운학의 정체와 관계를 증명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25001-0128]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옥소전」은 가족 간의 이별과 만남이라는 서사적 구도 속에서 남성 인물들의 영웅적 활약을 보여 줌으로써 조선 후기의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주의를 담아낸 작품이다. 우리나라 사람인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중국에까지 진출하여 중원의 위기를 해결하는 업적을 이루고 보상을 받는데, 이는 출세에 대한 욕망을 가진 독자에게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민족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장면은 인물이 시련을 극복하고 가족과 기적적인 상봉을 이룬 것이며, 이러한 설정은 피폐한 현실에서 고난받아 지친 민중의 삶을 담아내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① 기적으로 ‘부자가 상봉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도모’하는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인물의 모습에서 현실의 삶에 지친 당대 민중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는 작품의 창작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중국의 송과 축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서 축왕이 ‘승상의 지휘’를 따르게 됨으로써 춘백이 위기 해결의 중심인물로 자리하는 설정에서 독자는 민족적 자부심을 느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군.
- ③ 춘백이 ‘운남도의 적변을 당하여 만사여생’의 몸으로 가족과 이별하게 된 모습은 조선 후기의 피폐한 현실 속에서 민중이 겪었던 고난이 작품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남성 인물을, 타국의 ‘만리 전장에 원수로 만나’ 저마다 영웅적 활약을 펼치고 가족의 이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축으로 삼은 것은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중국에 진출하여 난리를 평정한 것과 더불어 천자에게 ‘조정의 높은 벼슬을’ 보상으로 받은 인물의 모습은 출세에 대한 욕망을 가진 독자에게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137p / 해설 51p]

다음 날 새벽, 설 부인은 이 일을 글로 써서 설정문에게 걱정되는 바를 몰래 알리면서, 급히 와서 위광미와 의논하여 바삐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였다. 정당에 함께 있던 설정문 부부는 시녀가 바친 설 부인의 그 편지를 읽다가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며 경악하여 말을 잊지 못하고 분노를 터트렸다.

“간 국구*가 우리를 어찌 이렇게 능멸한단 말인가?”

설정문의 부인 장 씨도 탄식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아이가 깊은 방에 금옥처럼 몸을 잘 감추고 지켰거늘, 숨졌던 이름이 어떻게 어디로 누설되어 이와 같은 간사한 이의 흉계를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설정문이 분해하면서 수레를 타고 가서 위광미 형제를 만나 대책을 의논하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A] “딸아이의 규방 행실은 깊이깊이 숨겨 드러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어떤 간사한 놈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엿보았는지……. 어쨌든 간악한 무리가 개돼지 같은 자기 자식 때문에 흉측한 계책을 꾸며 이런 화를 만든다고 하니 혼사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혼인 날짜를 다시 잡으니 불과 다시 며칠 뒤였다. 위광미 형제와 설정문이 모두 기뻐하며 흠어졌다. 양쪽 집안에서는 이 일을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만 위광미가 어머니께만 아뢴 뒤에 이 부인이 조용히 예복을 준비하였다.

마침내 혼삿날이 되었다. 양 부인이 그제야 소식을 듣고 분함애 이를 갈며 취정을 보면서 말하였다.

[B] “설씨네 딸을 무조건 탈취하여 간씨 조카의 좋은 짝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묘한 계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집안 식구들이 나를 속이고 뜻밖에 혼인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이 분하고 원통하니 이 씨가 어진 며느리로 슬하를 빛내 득의양양하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이나?”

말을 마치고 급히 국구 간문추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중에 설옥영을 탈취하게 하였다. 그러고는 짐짓 미소를 띠며 밝은 얼굴로 식장에 참석하였다.

한편 설씨 집안에서는 혼수를 정성껏 장만하였으나 가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화를 막을 계책이 정해지지않아 근심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금위교위 이극용은 설정문과 막역한 사이였고 집안 끼리도 교유가 있었다. 설정문이 이 일을 이극용에게 상의하였다.

“이런 괴상망측한 자를 속이려면 모름지기 ㉠ 이리이리하면 될 것입니다.”

설정문이 그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부탁하였다.

“부디 요란하게 굴지는 말게.”

이극용은 알겠다고 하고 양껏 술을 마시고 칼을 빼 손에 들고 따로 가마에 올랐다. 뒤따르는 시종들이 호위하여 큰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떼의 무수한 하인들이 크고 작은 몽둥이를 들고 몰려 나왔다. 그들은 시종들을 모두 내쫓고는 가마를 뺏어 메고 곧장 어디론가 향하였다. 바로 국구 간문추의 집이었다.

이때 보형은 길복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서 설정문 집으로 가고 있었다. 위엄 있는 행차가 큰길에 나서자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보형의 위풍을 입에 닳도록 칭찬하였다. 설정문 집에 이르니 내외의 손님들이 빙 둘러 모여 있었다. 설 추밀이 막 가짜 가마를 보내고 신랑을 맞이하였다. 위보형은 단장한 설옥영과 전안례를 마친 후 설옥영이 가마에 오르자 가마에 자물쇠를 걸고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였다.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 위보형의 옥 같은 풍모를 보고 칭찬을 자자하게 하였지만, 설정문은 국구 간문추의 소행과 이극용이 장난할 일을 생각하니 끝없는 염려가 생겨 흥이 나지 않았다.

(중략)

그때 위보형의 눈에 차일을 친 곳에서 신부 설옥영의 행동 거지를 살피며 눈동자를 바삐 굴리고 안쪽을 살피는 계집종 하나가 들어왔다. 위보형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 자세히 보니 여우 같은 맵시, 쥐와 같은 꾸밈새에 벌의 눈과 전갈의 정령을 지니고 있는데, 남자의 몸으로 여자로 변장하여 음양을 바꾼 것이었다. 외당으로 나와 시종에게 슬며시 명하여 난간 아래에 있는 계집종을 서현으로 잡아 대령하게 하였다. 시종들이 명을 받들어 안체에 고하여 그 계집종을 잡아내 오니 그 여자가 기겁하고 발악을 하며 소리쳤다.

“나는 양씨 집안의 하녀로 성대한 잔치를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이처럼 무례하게 대하느냐?”

그 소리가 하도 요란하여 내외의 손님들이 놀라서 영문을 묻자 위보형이 대답하였다.

“저 사람은 결단코 여자가 아닙니다. 몸을 수색해 보면 남녀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말을 마치고 주변의 시종들에게 명하여 몸을 수색하게 하니 과연 남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휘둥그렇게 놀라 형벌을 내리려 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시종들을 밀쳐 내며 말하였다.

[C] “나는 간 국구의 천금 같은 아들 간옥지이다. 어렸을 때 설 소저와 혼약을 맺었거늘, 위씨 집안 아들이 빼앗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기에 분하기 그지없어 여기 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뿐이다. 너희들이 어찌이리 무례하게 군단 말이나? 훗날 반드시 머리 잘린 귀신이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놀라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위보형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기에 시종들에게 물러서라 하고 말하였다.

[D] “태평성대에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규방 안을 엿보는 변고는 조중에 아될 일이나 그대가 간 국구의 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십분 용서하겠다. 올라와 마음 놓고 구경하라.”

위보형이 용서하는 바람에 간옥지는 겨우 옥을 면했으나 무슨 낮으로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바로 팔을 뿌리치며 대문을 나가 달아나니 그 꼴은 차마 보기에 민망하였다.

이에 앞서 국구 간문추의 시종들이 설옥영이 타고 오는 가마를 뺏어 곧장 간 국구의 집으로 왔다. 국구 간문추 부자는 정중하게 주변을 물리치고 가마 문을 열었다. 그곳에 모인 안팎의 손님들과 아랫사람들은 이미 옥영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레같이 들었기 때문에 저마다 빨리 보고 이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인네들 역시 옥영을 구경하고자 병풍을 친 듯 둘러섰다. 그러나 발을 들어 본 가마 안에는 옥 같은 가녀린 미인은 간 곳이

없고 큰 사내 한 놈이 서릿발 같은 장검을 칼집에 꽂으며 벽력 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나는 금포 장군인데 국구께서 무슨 일로 저를 데려온 것입니까?”

말을 마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왼손에 장검을 들고 오른손에는 철 도리깨를 쥐고 서서히 가마 밖으로 나왔다. 호랑이 수염을 휘날리며 고리눈을 부릅뜨니 번갯불이 번뜩였다. 국구 간문추 부인 양 씨의 시녀와 여러 부인들이 놀라 자빠져 덜덜덜 떨었다. 새신랑 간옥지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쥐 숨듯 달아났다.

- 작자 미상, 「천수석」 -

* 국구: 임금의 장인.

[25001-0131]

3.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 언급된 ‘홍측한 계책’을 세운 사람의 정체를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B]에 언급된 ‘묘한 계책’에 대한 설정문의 해결 방안을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B]에 언급된 ‘뜻밖’의 ‘혼인 준비’에 대한 간옥지의 생각을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C]에 언급된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한 구체적 양상을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D]에 언급된 ‘변고’를 행한 간옥지의 변명을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001-0129]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 부인은 설정문이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아 보형과 옥영의 혼사가 늦어질 것을 염려하였다.
- ② 장 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옥영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자책하였다.
- ③ 설정문은 보형과 옥영의 혼례 날짜를 바꾸지 말자는 위광미 형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 ④ 위광미는 보형과 옥영의 혼사 계획이 누설될 것을 염려하여 가족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부탁하였다.
- ⑤ 양 부인은 보형과 옥영의 혼례 때 간문추에게 옥영을 탈취할 계책을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25001-0130]

2. 윗글의 맥락을 바탕으로 ㉠의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극용은 가마에 오르기 전에 미리 갑옷과 무기를 챙긴다.
- ② 옥영이 가마를 타고 보형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이극용이 탄 가마를 먼저 큰길로 내보낸다.
- ③ 간문추의 하인들이 나타나면 시종들은 이극용이 탄 가마를 간문추의 하인들에게 내어 준다.
- ④ 간문추의 집에 도착한 후 가마가 열릴 때까지 이극용은 정체를 숨기고 가마 안에서 기다린다.
- ⑤ 이극용은 가마에서 나와 옥영과 보형의 혼사가 끝날 때까지 간옥지를 그의 집에 붙잡아 둔다.

[25001-0132]

4.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천수석」은 혼인을 둘러싼 가문 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혼사를 방해하는 악인과 비범함을 지닌 주인공의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주인공과 조력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악인 및 그 주변 인물과 대결할 때 각자의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대응 방식이 여장 모티프 등과 결합되어 악인과 그 주변 인물을 곤경에 빠트리면서 독자에게 통쾌함을 주고 있다.

- ① 간문추 부자와 양 부인이 보형과 옥영의 혼인을 방해하고, 설정문 부부와 위광미 형제가 만나 대책을 의논하는 모습에서 혼인을 둘러싼 가문 간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보형이 자신의 맑은 눈으로 자신의 집에 여장을 하고 몰래 숨어 들어온 간옥지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주인공이 자신의 비범함을 통해 악인에 대응하는 모습에 해당하겠군.
- ③ 간문추의 하인들이 큰길에서 이극용이 탄 가마를 가로채고, 보형의 시종에게 잡혀 온 간옥지가 간문추의 아들임을 밝히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서 ‘국구’라는 지위가 혼인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보형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장한 간옥지의 정체를 드러내고, 가마에서 옥영 대신 이극용이 나타난 것을 보고 간문추의 가족이 놀라는 모습은 악인이나 그 주변 인물이 곤경에 처하는 과정이 여장 모티프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주는 장면이라 볼 수 있겠군.
- ⑤ 간옥지의 의도를 알면서도 올라와 마음 놓고 구경하라며 보형이 간옥지를 용서하고, 간문추의 의도를 알면서도 간문추에게 자신을 데려온 이유를 묻는 이극용의 모습에서 악인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인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41p/해설 53p]

[아니리] ㉠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 들고 생각하니, 어데다 넣어야 물이 한 점 안 묻을까, 생각다 못하여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 에다가 턱 화상을 넣고 보니, 자, 이만하면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류를 해 보는데,

[진양]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허니 무엇 하러 가라느냐. 삼대독자 네 아니냐 장탄식 병이 든들 뉘 알뜰히 구완하며 네 몸이 죽어져서 오이연의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두다리며 휘여허 날려 줄 이가 뉘 있더란 말이냐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세상 이라 허는 데는 수중인간이 얼른하면 잡기로만 위주를 한다. 옛날에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십 리 사장 모래 속에 속절없이 죽었다는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내가 세상을 가지 마는 살려 두고 못 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에 가지를 마라.

[아니리] “나라에 환후가 계옵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 있사오리까.”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마는 내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志氣)를 보기 위하여 만류를 하였구나. 네 충심이 그러할진대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 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백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오.”

별주부 마누라가 울며불며 나오더니,

[중중모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兩主) 마주 떠 맛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 청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규중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아니리] “그 말은 방불허나 뒤 진털발 남생이가 흠일세.”
충충히 작별 후에 수정문 밖 썩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데 가관이였다.

(중략)

[아니리]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 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만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 턱이 팻팻해야 ‘토’ 자를 ‘호’ 자로다가 한번 불러 보는데,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송덜송한 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 놓니 첩첩산중의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데,

[엇모리]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귀 쪽 찢어지고 몸은 얼송덜송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이 같은 뒷다리 전통 같은 앞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A]

[B]

[C]

[D]

좌르르르르르르르 헤치며 주홍 입 떡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서 흥앵흥앵 하는 소리 산천이 뒤엎고 땅이 툭 깨지란 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엮혔을 때,

[아니리]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어 버린 쇠뿔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게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등글, 저리 보아도 등글. 우둥글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으니 아마 이게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 한다드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짹 짹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부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랑이 깜짝 놀라,

“이크,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허자구. 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일고.”

“네 저는 수국 전옥 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허요.”

호랑이가 자라란 말을 듣고 한번 놀아 보는데,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요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당이 원이더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 좋은 진미를 비여 먹어 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나 두꺼비요. 내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 회춘 명약(名藥)이라 두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르으앙.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 맛을 것이 동의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드는구나.

[아니리] ㉡ 별주부가 한 피를 얼른 내고 목을 길게 빼어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어,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랑이 깜짝 놀라,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가는 하루 일천오백 발 나오겠오.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 봐라.”

[휘모리] 우리 수국 퇴락하야 천여 칸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철척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으니 명의더러 물은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 하기로 도리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내가 일찍 호랑이나 쓸개 한 봉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게 있느냐 비수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도리랑 도리랑.

[아니리] 호랑이 다리를 짹 물고 뺨 돌아노니 어찌 호랑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압록강까지를 당도했었다. 거기서 제 혼자 장담하는 말이,

“이크, 그놈 참 용맹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영락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그때에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대 내 정성을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목욕재계 정히 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 보더라.

- 작자 미상, 「수궁가」 -

* 화상: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형상. 여기서는 ‘토끼’의 그림을 이룸.

- * 위방불(입): 위험을 피하거나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말로, 「논어」에서 유래한 말임.
- * 절행: 절개를 지키는 행실.
- * 발: 길이의 단위. 한 발은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함.
- * 새납: 나팔 모양으로 된 우리나라 고유의 관악기.

[25001-0133]

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머리와 목을 딱지 속으로 완전히 집어넣을 수 있다는 특징을 활용한 것이라면, ㉡은 목이 매우 길게 늘어난다는 특징을 활용한 것이다.
- ② ㉠이 화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별주부의 발상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은 호랑이를 만난 별주부의 순발력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 ③ ㉠이 ‘수궁’이라는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별주부가 선택한 행동이라면, ㉡은 호랑이가 자라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하여 별주부가 시도한 행동이다.
- ④ ㉠이 먼 길을 떠나는 별주부가 자신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면, ㉡은 별주부가 호랑이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한 행동이다.
- ⑤ ㉠이 수로만리를 지나 약을 구해 오라는 임금의 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면, ㉡은 만병 회춘 명약을 내놓으라는 호랑이의 명을 따르는 척하는 행동이다.

[25001-0134]

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별주부 모친과 [B]의 부인은, 임금을 걱정하며 약을 구하러 세상에 가겠다는 별주부의 말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추어내고 있다.
- ② [A]의 별주부 모친과 [B]의 부인은, 별주부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가는지 알고 있으면서 별주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A]가 모친의 만류에 대한 별주부의 반응을 통해서 별주부의 의지와 기개를 부각하고 있다면, [B]는 부인의 다짐에 대한 별주부의 반응을 통해서 아내의 엄숙함과 절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A]가 별주부의 행차를 끝까지 만류하는 모친의 모습을 통해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B]는 떠나지 말 것을 애원하는 부인의 모습을 통해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가 모친의 만류를 뿌리치고 세상에 나가는 별주부의 모습을 통해 충성심을 부각하고 있다면, [B]는 절행지사를 말하는 부인에 대한 별주부의 대답을 통해 남생이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25001-0135]

3. 윗글에서 호랑이가 등장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끼를 보고 ‘저기 앓은 게 토생원 아니오?’라고 말하려던 별주부가 말실수를 하여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우연한 사건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별주부가 ‘수로만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턱이 뺏뺏’해서 이 사달이 벌어진 것으로 구성하여, 앞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별주부가 의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 것이라며 호랑이가 등장하는 이유를 덧붙임으로써, 호랑이가 자신을 추켜올려 주는 말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누에머리를 흔들며 ~ 새납 같은 발톱으로’와 같이 호랑이의 외양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집어넣어, 호랑이가 산을 내려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주홍 입 떡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서 ~ 땅이 툭 깨지란 듯’과 같이 별주부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호랑이의 행동을 과장함으로써, 별주부가 느끼는 두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25001-0136]

4. <보기>를 바탕으로 [C]와 [D]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판소리는 ‘창’과 ‘아니리’로 구분되는데, 노래 부분에 해당하는 ‘창’을 진행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판소리 창자는 창을 할 때,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서 특정 장면이나 사물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한정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작중 인물들의 대화를 재현하여 사건이나 갈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서술자의 목소리나 말투를 취하면서도 작중 인물의 사고와 감정을 투영시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창자는 서술자로서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를 감추고 작중 인물의 입장이나 상황을 중점적으로 묘사한다. 판소리 창자는 창을 통해 거시적 사건의 진행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작중 인물의 속마음을 독백의 형식으로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창 의 서술 양상을 파악하면 판소리를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 ① [C]는 거시적 사건의 진행 과정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작품 전체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고 있고, [D]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취하되 자라의 사고와 감정을 투영시켜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자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C]는 호랑이와 자라가 만나 벌어진 사건 중 서술자가 관찰하고 파악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장면을 제시하고 있고, [D]는 호랑이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는 자라의 내면 심리를 독백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C]는 자라를 맞보고 싶은 호랑이의 기대감을 드러내며 작중 인물의 대화 속에서 갈등을 드러내고 있고, [D]는 작중 인물인 자라의 입장에서 호랑이를 겁주기 위한 말과 행동을 묘사하여 자라의 상황 대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C]는 호랑이와 자라가 한 말들을 비슷한 비중의 대화로 제시하면서 작중 인물이 가진 신념이나 태도를 비교하고 있고, [D]는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서 자라가 처한 위기의 상황과 호랑이의 외형을 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C]는 자라를 처음 만난 호랑이의 호기심과 자라를 잡아먹고 싶은 욕심을 독백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고, [D]는 호랑이를 만난 후 겁에 질린 자라가 목을 길게 늘이고 있는 이유를 관찰자의 입장이 되어 객관적 태도로 제시하고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46p / 해설 55p]

그렇저렇 마친 후 점심밥 포식하고 여인을 하직 후에 황성으로 올라갈 제 촌촌전진(寸寸前進) 여러 날에 낙수교 얼른 지나 녹수정 들어가니 어떤 여인이 부르는 말이,

“저기 가는 심 봉사님. 이리 잠깐 오옵시오.”

심 봉사 괴이하여 가까이 들어가니 손을 잡고 인도하여 사랑으로 들어가서 석반(夕飯)을 올리거늘 심 봉사 안 마음에, ‘이상하다 괴이하다. 날 알 이가 없건마는 어인 일로 관대하노.’ 석반을 먹은 후에 그 여인이 다시 나와,

“심 봉사는 내당으로 가사이다.”

심 봉사 하는 말이,

“외주인(外主人)* 유무는 모르거니와 어찌 내당으로 들어가리까. 무슨 우환 있소? 나는 독경(讀經) 못 하오.”

그 여인 대답하되,

“잡말 말고 가사이다.”

끌려 들어가며 생각하되, ‘내가 아마도 음란 중에 드나 보다.’ 대청에 올라가서 좌상에 앉은 후에 동편에서 한 여인이 하는 말이,

“심 봉사이오?”

“나를 어찌 아시리오마는 아는 도리 있으리오.”

“내 성은 안씨요, 황성에서 사육더니 불행하여 부모 구물*하옵시매 노복이 산망(散亡)하고 이 집을 지키오나, 시년(時年)이 이십오 세 되도록 정혼치 못하옵고 점서(占筮)*를 배워 평생을 아는지라. 이십오 세 길운이요, 간밤에 ㉠꿈을 꾸니 하늘의 일월이 떨어져 강중(江中)에 잠기거늘 첩이 건져 품에 품어 보이기로 즉시 깨어 해몽하여 작괘한즉, 일월은 사람의 안목(眼目)이매 나와 같이 맹인인 줄 짐작하고, 물에 잠겨 보였으며 성자(姓字)는 심씨인 줄 짐작하여 시비를 내어보내 문전으로 가는 맹인을 차례로 문삽더니 천우신조하여 금일 상봉하오니 연분인가 하나이다. 첩이 비록 용우(庸愚)하나 버리지지 아니하면 군자를 받들리니 군자 의향 어떠하오니까?”

심 봉사 미소 답 왈,

“말씀은 좋거니와 그러기가 쉬우리까.”

안씨 맹인 시비 불러 주찬을 나아오게 하고 거주(居住)와 그동안의 일을 묻거늘, 심 봉사 전후 신세를 낱낱이 말한 후에 방성통곡 슬퍼하니, 안씨 맹인 위로하고 그날 밤에 함께 잔 후에 심 봉사 아침 전에 일어나서 수심으로 앓았거늘 안 씨 위로하여 묻는 말이,

“무슨 근심 있나이까. 첩의 마음 불안하오.”

심 봉사 대답하되,

“일평생을 두고 본즉 길한 일이 있사오면 흉한 일이 있사오니 그걸로 근심하나이다. 간밤에 ㉡꿈을 꾸니 불 속에 들었더니 가죽 벗겨 북 메우고, 잎이 떨어져 보이니 아무리 생각하되 죽을 꿈이 분명하오.”

안씨 부인 해몽하되,

“신재회중(身在灰中)타가 거피작고(去皮作鼓)하니 입궁지상(入宮之象)이요*,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를 상봉이라. 꿈은 대몽이오니 매우 좋소이다.”

심 봉사 양천 소(笑) 왈*,

“천부당만부당지설이로고.”

“지금은 못 믿어도 나중을 보옵소서.”

아침밥 즉시 먹고 췌문 밖에 다다르니 췌내에 소경 빛일러라.

이때 황후, 부친 종적을 알 수 없어 맹인 잔치 배설하여 성명 성책(成冊) 상고해도 심 맹인이 없는지라. 자탄으로 하는 말이,

“우리 부친 그간에 눈을 떠서 맹인 축에 아니 드는가. 나를 잃고 애통타가 죽으신가. 잔치는 오늘 마지막이라. 어찌 아니 오시는고.”

[A] 이렇듯이 자탄한 후에 성명 성책 다시 보니 성책 끝에 ‘도화동 심학구라’ 하였거늘 동명(洞名)과 성자(姓字)는 옳으나 부친의 함자를 몰라 시녀로 하여금 심학구를 불러오라. 심 봉사 꿈을 생각하고 꺼리어 감추려고 하다가 안 씨 해몽 생각하고,

“내가 심 봉사오.”

심 봉사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가니 부친 용모 방불하다. 자세히 알 길 없어 물으시되,

“처자 있느냐?”

심 봉사 복지(伏地) 주 왈*,

“중년에 상처*하고 말년에 딸 하나 두었더니 요괴한 중의 말을 믿어 아버님 눈 뜨기를 원하여 삼백 석에 몸을 팔려 인당수에 죽사온 후 눈도 못 뜨옵고 자식만 잃었나이다.”

세세히 아뢰오니 황후 이 말을 들으시매 부친이 분명하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부친 목을 후려 안고 실성통곡하는 말이,

“아버님 살아왔소. 인당수에 죽은 심청 살았으니 어서 급히 눈을 떠서 나의 얼굴 보옵소서. 애중하던 외딸을 자취 없이 잃고 어이 진정히 계시며 그 고생을 어이하셨나이까. 알뜰히도 보고 싶고 알뜰히도 그리워라. 슬프다 아버님아. 불효 여식 다 보옵소서.”

심 봉사 이 말 듣고,

“어따, 이 말이 웬 말이냐?”

대경하여 두 눈을 번쩍 뜨니 백일이 광명하여 천지가 명랑하다. 딸의 얼굴 살펴보니 갑자 사월 십일야에 보던 선녀 분명하다.

딸의 목을 덥석 안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말이,

“불쌍하다. 너의 모친 영별 후에 십오 년을 눈물로 너를 길러 일조에 잃고 삼사 년 고생타가 여기 와서 너를 만나고 눈을 뜨니 꿈이나 생시냐?”

슬프고 즐겨하는 양을 어찌 다 형언할꼬. 춤을 추며 노래하되,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人道還生) 이 아닌가. 감은 눈을 다시 뜨니 대명천지 밝았어라. 부중생남 중생녀(不重生男重生女)*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지화자 좋을시고.”

- 작자 미상, 「심청전」 -

* 외주인: 남편을 이르는 말.

* 구물: 모두 세상을 떠남.

* 점서: 과거를 알아맞히거나, 앞날의 운수, 길흉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일.

* 신재회중타가 ~ 입궁지상이요: 몸이 재 가운데 있고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드니 궁으로 들어갈 형상이라는 뜻.

* 양천 소 왈: 하늘을 우러러 웃으며 말하길.

* 복지 주 왈: 땅에 엎드려 아뢰길.

* 상처: 아내의 죽음을 당함.

* 부중생남중생녀: '아들 낳기 힘쓰지 말고 딸 낳기를 힘쓰세.'라는 뜻으로, 중국 백낙천의 「장한가」의 한 구절임.

[25001-0137]

1. **한 여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심 봉사에게 독경을 부탁한다.
- ② 심 봉사에게는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심 봉사와 대화를 나눈다.
- ③ 시비를 통해 지나가는 심 봉사를 불러들여 그와 연분을 맺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말한다.
- ④ 길에서 곤경에 처한 심 봉사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에게 음식과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 ⑤ 처음 만나서는 심 봉사를 의심하여 불안해했지만 나중에는 심 봉사의 전후 신세를 듣고 그를 위로한다.

[25001-0138]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으로 헤어진 두 인물이 ㉡을 계기로 재회한다.
- ② ㉠에서 비롯된 인물의 근심은 ㉡을 통해 해소된다.
- ③ ㉠으로 초래된 인물 간의 갈등이 ㉡을 통해 심화된다.
- ④ ㉠을 통해 인물이 한 행동의 이유가 제시되고, ㉡을 통해 인물 간의 재회가 암시된다.
- ⑤ ㉠은 앞날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하고, ㉡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25001-0139]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판소리 향유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로, 사대부들이 판소리 공연을 보고 나서 자신의 감상을 한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은 「심청가」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한시로, (가)는 이유원의 「관극팔령」 중 <화중아>이고, (나)는 송만재의 「관우회」 제15수이다.

(가) 장삿배 한데 모여 강의 신령에 굶을 하니
하늘이 낸 효녀는 육신을 팔기 원했다네.
재물은 천지조화에 참여하여
죽은 자 환생하고 맹인이 눈 뜨게 했네.

(나) 효성스런 딸이 아버지의 가난으로 육신을 바치기 원하니
장삿배 따라가 물의 신령에게 시집보내졌다네.
꽃봉오리 하늘이 보호하여 황후가 되고
잔치가 끝나자 맑은 눈동자* 아버지를 알아보았네.

* 맑은 눈동자: 미인의 아름다운 눈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심청을 가리킴.

- ① 심 봉사가 '말년에' 둔 '딸 하나'가 '아버지 눈 뜨기를 위하여 삼백 석에 몸을 팔'았다고 한 것에서, (가)에서 '하늘이 낸 효녀'가 '육신을 팔기 원했'던 이유와 (나)에서 '효성스런 딸'이 '육신을 바치기 원하'였던 이유를 알 수 있군.
- ② 심청이 심 봉사의 말을 듣고 '부친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나)에서 심청이 '아버지를 알아보았'던 이유를 알 수 있군.
- ③ 심청이 '인당수에 죽은 심청 살았'다고 말하고 심 봉사가 '죽은 딸을 다시 보니'라고 한 것에서, (가)에서 '죽은 자 환생하'였다는 말이 뜻하는 바를 알 수 있군.
- ④ 심청이 '그 고생을 어이하셨나이까', '슬프다 아버지야'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한 것에서, (나)에서 말한 '아버지의 가난' 때문에 심청이 겪어야 했던 고생을 알 수 있군.
- ⑤ 심 봉사가 '너를 길러 일조에 잃고' '너를 만나고 눈을 뜨니 꿈이냐 생시냐'라고 말한 것에서, (가)에서는 심 봉사가 겪은 일 가운데 '하늘이 낸 효녀'의 효심으로 '맹인이 눈 뜨게' 된 신이한 사건이, (나)에서는 '효성스런 딸'이 아버지와 헤어졌다가 '황후가 되어' 상봉한 사건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군.

[25001-0140]

4. <보기>는 「심청전」 이본의 일부이다.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때 심 황후 여러 날을 맹인 잔치 할 때 성명 성책을 아무리 들여놓고 보시되 심씨 맹인이 없으니 자탄하사,

“이 잔치 배설한 바는 부친을 뵈옵자고 하였더니 부친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인당수에 죽은 줄로만 아시고 애통하여 죽으셨는가? 몽운사 부처님이 영험하여 그간에 눈을 떠서 천지 만물을 보시어 맹인 축에서 빠지셨는가? 잔치는 오늘이 마지막이니 친히 나가 보리라.”

하시고 후원에 나와 앉으시고 맹인 잔치 구경하실새 풍악도 낭자하며 음식도 풍비(豐備)하여 잔치를 다한 후에,

“맹인 성책을 올리라.”

하여 의복 한 벌씩 내어 주실새, 맹인 다 하례하고 성책 밖의 맹인 하나가 우뚝 서 있으니 황후 물으시되,

“어떠한 맹인이오?”

여상서를 불러 물으시니 심 봉사가 겁을 내어,

“과연 소신이 미실미가*하여 천지로 집을 삼고 사해로 밥을 부치어 유리(流離)하여 다니오매 어느 고을 거주 완전히 없사오니 성책에도 들지 못하옵고 제 발로 들어왔삽나이다.”

황후 반기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여상서 영을 반자와 심 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새 심 봉사 아무런 줄 모르고 겁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하(階下)에 서 있으니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 볼레라.

* 미실미가: 매우 가난하여 들어 있을 만한 집도 없음.

- ① [A]와 달리, <보기>는 심 봉사의 이름을 맹인 잔치의 성명 성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여, 집 없이 떠돌아 다니는 심 봉사의 가련한 처지가 부각되게 했군.
- ② [A]와 달리, <보기>는 맹인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심 봉사가 나타나지 않자 황후가 잔치에 직접 나가 보는 것으로 장면을 제시하여, 부친을 찾고 싶어 하는 황후의 간절한 마음이 강조되게 했군.
- ③ <보기>와 달리, [A]는 맹인 잔치를 배설한 목적을 황후의 목소리로 직접 진술하여, 부친을 그리워하는 황후의 심정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했군.
- ④ <보기>와 달리, [A]는 황후의 부름을 받은 심 봉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유와 그럼에도 대답을 한 이유를 언급하여, 장면이 심 봉사가 맹인 잔치에 오기 전에 겪은 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했군.
- ⑤ <보기>와 달리, [A]는 맹인 잔치에 대한 묘사, 잔치가 끝난 후 맹인들을 위해 황후가 한 일에 대한 서술을 생략하여, 맹인 잔치를 통해 심 봉사와 황후가 재회하는 과정이 보다 빠르게 전개되도록 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51p/해설 57p]

임금이 밤에 책을 보다가 달을 보려는 흥이 일어나 환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련정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도둑으로 의심하여 멈춰 서서 더 이상 가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그들의 동정을 자세히 살피니 정녕 경치를 즐기는 궁인들이었다. 친히 가서 보니,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궁녀와 함께 팔을 나란히 베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국법으로써 논할진댄 죄는 주살해도 용납되지 못하나, 은혜(恩愛)로써 살필진댄 정리상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임금은 ㉠ 한삼(汗衫) 한 폭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 주고 나왔다. 대개 자애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리라.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곧 임금이 다녀간 것을 깨닫고는 몹시 놀라서 각자 처소로 돌아가 다만 죽기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겨우 며칠이 지나자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이 상소문을 함께 올려서 복상의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했으나, ㉡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택하지 않았다. 이때 전(前) 판서 이수광이 있었는데 호가 지봉이며 바르고 곧은 사람이었다. 임금도 매양 그를 공경하여 예를 갖추니, 한나라의 신하 급암에 견줄만했다. 그는 임금에게 급히 뵈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국법이 바로 선다고 힘써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 임금도 하는 수 없어 사형만은 감하여 복상은 제주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도록 하고 궁녀는 강계에 귀양 보내도록 명했다.

어느 날 임금은 일찍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다. 그리고 주연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 범의 가죽을 깎긴 의자를 내놓게 하고는 환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두루 알리도록 했다.

“대소 신하들 중 본택 밖의 방(房)에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미적거렸으나 유독 지봉만은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으며 말했다.

“소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탄복하였으며,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그의 몸가짐의 고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음에 감복했다. 이후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깎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아 두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년이 지났다.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여 비록 마음에 간절하나 ㉥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

어느 날 임금이 지봉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평양 감사가 올린 계(啓)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소. 그러나 평안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요하기가 쉬우므로 본디 중신(重臣)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소. 그뿐 아니라 평양 감영의 산수는 나라의 제일이라고 일컬어지거늘 경이 부디 수고로움을 잊으시고 한 달의 말미를 줄 테니, 한편으로는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를 마음으로 다한다고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년에 경치를 즐기는 낙으로 여기어서 태평세계를 펴 넓힌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박정한 말로 들리겠지만 가주시오. 행차를 전별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예법은 단오 부채 하나를 준다고 하오. ㉦ 부채로써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하노니, 경은 사양하지 마시오.”

[중략 부분 줄거리] 지봉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양 감사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려 그곳의 기생으로 하여금 지봉을 유혹해 훼손시키라고 명한다. 평양에 간 지봉은 노련한 기생 백옥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자신의 절개를 깨뜨린다.

이 공은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소신은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은으로써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 임금 앞에 어찌 꺼리어 숨기겠습니까? 임금이 교명(敎命)이 이렇게 됨에 소신은 부끄럽고 황공하여 용서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탄복하며 말했다.

“임금에게 아뢰에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이도다.”

임금은 순찰한 일이 어떠했는지 직접 물었고 이 공이 그것에 대해 아뢰고 나니, 임금이 이 공에게 술을 내렸다. 이때 백옥은 병풍 뒤에 있었지만, 이 공은 엎드려 있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 못했다. 백옥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드리니 이 공은 엎드린 채 손을 내밀어 받아서 마셨다. 탐스러운 쪽 찢 머리와 옥으로 된 귀걸이,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이 술잔 중에 비치었다. 이에 이 공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다.

[A]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김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이 어인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 주시는 것일까?’ 이 공이 술 마시기를 마치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경은 시험 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이 공은 잠깐 눈길을 보내어 보니 백옥이었다.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신도 또한 그중 하나의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너그럽게 감싸 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감히 성덕의 시종을 엿보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백옥으로 하여금 이 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했다.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양(陰陽)을 거두고 펼쳐어 능히 경으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했으니 진실로 견우적녀를 이어 준 두 부채*에 못할 것이 없소.”

임금은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무릇 초패왕 항우의 뛰어난 계략도 옥장(玉帳)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식의 큰 절개도 늙어서는 호희(胡姬)에게 정을 의탁하였으니,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도다. 오호라!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여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거늘,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삼 년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이에 이 공은 감사함을 받들어 머리를 굽혀 절을 하며 말했다.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되옵니다.”

- 작자 미상, 「지봉전」 -

* 위리안치: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

* 견우직녀를 이어 준 두 부채: ‘두 부채[雙扇]’는 견우와 직녀를 이어 주는 오작교 입구의 문짝을 이르는 말임.

[25001-0141]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간들이 문제 삼은 복상의 행위가 법에는 어긋나지만 임금 자신에게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다.
- ② ㉡: 훌륭한 신하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과 총애하는 신하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 ③ ㉢: 지봉을 제외한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첩이 있어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떳떳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다.
- ④ ㉣: 복상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과 그럴 수 없는 상황 사이에서 겪는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모습이다.
- ⑤ ㉤: 지봉이 백옥과 헤어진 후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백옥을 알아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다.

[25001-0142]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물의 도덕성을 가늠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물이다.
- ② ㉠은 인물의 놀란 마음을, ㉡은 인물에 대한 박정한 태도를 나타내는 사물이다.
- ③ ㉢은 인물의 품행이 고상함을, ㉣은 인물이 절개를 잃었음을 알게 하는 사물이다.
- ④ ㉠은 인물의 죄상을 논하려는 마음을, ㉡과 ㉣은 인물에 대한 자애심을 드러내는 사물이다.
- ⑤ ㉠, ㉡, ㉣은 모두, 인물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사물이다.

[25001-0143]

3. [A]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옥이 이 공에게 돌려준 부채는 과거에 이 공이 백옥에게 정표로 주었던 것이다.
- ② 이 공은 백옥과 다시 만나게 된 기쁨 때문에 임금 앞에서 느꼈던 부끄러움을 잊게 되었다.
- ③ 이 공은 자신과 백옥 사이의 일이 임금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깨닫고 임금의 덕을 칭송했다.
- ④ 임금은 이 공과 백옥의 인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그 둘을 견우와 직녀에 빗대어 표현했다.
- ⑤ 임금은 이 공에게 비록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을 숨김없이 말한 이 공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25001-0144]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혜절 소설의 주인공 남성이 겪는 사건은 ‘위선의 탄로’와 ‘취약성의 인정’으로 구분된다. 앞의 경우 주인공은 감추려던 것이 탄로 나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 뒤의 경우 주인공은 타인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의 인간적 취약성을 깨닫고 타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되는 의식의 성장 과정을 보여 주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취약성에 너그러운 성숙한 인물을 만나거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 이를 만나는 것과 같은 유의미한 경험을 한다. 혜절 소설인 「지봉전」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적과 의식의 변화를 보여 준다.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가] 한양 ➡ [나] 평양 ➡ [다] 한양

- ① [가]에서 지봉이 임금의 의중과 달리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그가 타인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에서 자신이 감추려 했던 일이 [다]에서 탄로 나자 지봉이 임금 앞에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한 것에서, [가]에서 그가 보여 준 ‘몸가짐’이 위선이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나]에서 드러난 ‘경의 품행’을 근거로 [다]의 임금이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라고 한 것에서, 임금이 지봉에게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취약성에 너그러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다]에서 지봉이 복상의 죄를 용서하라는 임금의 말에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되옵니다’라고 한 것에서, [나]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그의 의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군.
- ⑤ [다]에서 임금이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서, 복상과 지봉에게 보인 임금의 관대한 태도가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군.